

碩 士 學 位 論 文

TV시트콤의 특성과 분장사례연구

- TV 주간시트콤 “안녕 프란체스카”를 중심으로 -

2007年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뷰티 藝術學科

扮裝藝術 專攻

蔡 周 燁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張禹植

TV시트콤의 특성과 분장사례연구

- TV 주간시트콤 “안녕 프란체스카”를 중심으로 -

The Case Study of the Properties and Make-up of
TV Sitcom

- Focusing on the weekly Sitcom "Hi Francesca"-

2006年 12月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뷰티 藝術學科

扮裝藝術 專攻

蔡 周 燁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張禹植

TV시트콤의 특성과 분장사례연구

- TV 주간시트콤 “안녕 프란체스카”를 중심으로 -

The Case Study of the Properties and Make-up of
TV Sitcom

- Focusing on the weekly Sitcom "Hi Francesca"-

이 論文을 藝術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6年 12月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뷰티 藝術學科

扮裝藝術 專攻

蔡 周 燁

蔡周燁의 藝術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定함

2006年 12月 日

審査 委員長 _____ (印)

審査 委員 _____ (印)

審査 委員 _____ (印)

국 문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TV 영상물의 장르중 하나인 시트콤 선행 연구를 통해 개념을 확립하고 해당 영상물의 분장적 측면의 연구를 위해서 본 연구자가 참여한 MBC 방송국 TV 프로그램인 “안녕 프란체스카”를 실례로 극의 분장 사례를 연구하여 TV 장르에 적합한 분장의 방향을 찾는데 그 목적이 있다.

TV 영상물은 형식에 따라 드라마와 비드라마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그 영상물의 성격에서도 멜로, 코믹, 액션, 가족애, 모험, 추리, 역사, 공상과학, 학원, 음악, 다큐, 공포, 뉴스, 오락, 버라이어티 등 많은 이야기 소재가 다양하다. 영상물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이나 제작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문분야인 분장의 성격도 각 영상물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은 첫째, 시트콤의 개념, 기원, 종류 등의 기본적인 시트콤의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 선행된 연구실적 고찰을 통하여 과거와 기존의 시트콤의 특성들을 비교하여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둘째, 시트콤의 성격에 가장 적합한 분장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분장의 실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연구하였는데 연구 대상물은 연구자가 2005년 01월 07일부터 2006년 02월 14일까지 분장 실무를 담당한 MBC TV 주간시트콤 “안녕 프란체스카”를 대상으로 시트콤 장르의 분장을 코미디, 드라마 등을 비교와 함께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시트콤과 분장의 이론적 연구를 통한 작품분석과 그에 따른 분장의 방향 그리고 기존 코미디와 현재 시트콤에 이르기까지 적용되는 분장의 성격들을 비교 분석하여 봄으로써 현재 시트콤에 적합한 분장의 방향을 찾아 배역의 성격을 가장 잘 부각 시킬 수 있는 분장을 실시함으로써 시청자와의 의사소통적인 측면의 대본을 통한 언어적 의

사소통 뿐 만 아니라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하나인 분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는 연구물의 계기가 되었다.

목 차

제 I 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문제 및 연구 방법	3
1. 연구 문제	3
2. 연구 방법	4
제 II 장. 시트콤의 이해	5
제1절. 시트콤의 개념	5
1. 시트콤의 정의와 기원	5
2. 프로그램 분류상 시트콤의 위치	7
제2절. 시트콤의 변천과정	11
1. 서구 시트콤의 변천과정	11
2. 한국 시트콤의 발전과정	15
1) 드라마의 발생과 TV 시대.....	15
2) TV 드라마의 정착과 시트콤의 태동.....	16
제3절. 시트콤의 특성	22

제 III장. TV시트콤 “안녕 프란체스카”에 대한 분장 사례연구	25
제1절. 분장의 이해	25
1. 분장의 개념	25
2. 분장의 기원	27
3. 분장의 종류	29
제2절. TV시트콤 “안녕 프란체스카”에 대한 분장 분석	33
1. 작품 기획의도	33
2. 작품내용과 등장인물	33
1) 작품내용	33
2) 등장인물 소개	34
3. 작품특징과 시청 포인트	36
1) 작품의 특징	36
2) 시청 포인트와 분장의 방향	37
4. 등장인물들의 성격표현 연구	40
5. 시트콤 분장변화의 연구	49
1) 상황설정에 따른 분장	53
2) 해학적인 요소의 분장	59
제 IV장. 결론 및 제언	66
제1절. 연구결과	66
제2절.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	73
참고 문헌	75
ABSTRACT	77

표 목 차

〈표1〉 TV형식에 따른 비드라마 분류.....	9
〈표2〉 TV형식에 따른 드라마 분류	9
〈표3〉 한국 시트콤의 역사.....	21

사진 목차

〈그림 1〉 아담스 패밀리	42
〈그림 2〉 프란체스카 분장	42
〈그림 3〉 안녕 프란체스카 등장인물	42
〈그림 4〉 엘리자베스 분장연출 1.....	44
〈그림 5〉 엘리자베스 분장연출 2.....	44
〈그림 6〉 그룹 ‘넥스트’ 공연당시 분장모습	48
〈그림 7〉 앙드레 분장으로 연출된 모습	48
〈그림 8〉 KBS 유머 일번지 中(1992), ‘영구야 영구야’	50
〈그림 9〉 KBS 유머 일번지 中(1990)	50
〈그림10〉 KBS 봉숭아 학당(1991년)	51
〈그림11〉 던져진 물건에 의해 생긴 멍 분장	54
〈그림12〉 80년대 후반 코미디 멍분장사진	54
〈그림13〉 자동차폭파로 생긴 상처분장	55
〈그림14〉 폭탄맞은 코미디 분장 사진촬영(1987)	55
〈그림15〉 드라쿨라에게 물려 생긴 상처분장	57
〈그림16〉 격렬한 싸움 후에 생긴 상처분장	57
〈그림17〉 노역분장	60
〈그림18〉 고양이 분장	60
〈그림19〉 세일러문 분장	60
〈그림20〉 광고 cf패러디	61
〈그림21〉 정신이상자 분장	61
〈그림22〉 황비홍 분장	62

〈그림23〉 가부키 분장	62
〈그림24〉 폼 라텍스를 이용한 노역분장과정.....	63
〈그림25〉 굽주리고 헐벗은 분장모습	64
〈그림26〉 거지모습으로 돌아온 프란체스카 가족들.....	64

제 I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공연 예술에 있어 배우와 관객 그리고 조명, 의상, 무대세트 등 각종 제 요소들은 일정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유기적 관계가 얼마나 잘 조화를 이루는가는 공연 예술의 완성도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질 것임을 우리는 주지하고 있다. 특히 공연 예술의 요소 중 하나인 분장은 극의 사실감을 높여주며 관객으로 하여금 공연의 주제인 메시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해주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 이러한 분장은 고대 공연예술이 시작 되었던 고대 그리스시대로부터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으며 공연예술이 하나의 형식적, 기능적 의미를 가지게 된 로마시대 때 공연예술의 한 요소로서 자리매김을 하면서 공연예술에 있어 극적 사실감을 부여하는 중요 역할을 하게 되었다.

대중문화와 예술 그리고 다수의 매스미디어의 발달은 그것에 따른 부수적인 요소들의 발전과 연구를 요하게 되었다. 현재 각 계층에서 수많은 분장사들이 현업에 종사하면서 대중매체의 발달과 함께 각 개인들의 역량을 십분 발휘하고 있으며 그것의 결과물에 대한 논의도 뒤따르고 있다.

분장에 있어서 영상과 무대의 분장은 기법에서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영상 분장에 있어서는 무엇 보다 세심하고 사실적인 분장방법을 택하고 있다. 모든 영상물의 분장은 드라마 형식에 초점을 맞추어 행하여지고 있는데 프로그램 형식엔 여러 종류가 있고 그리고 또한 그 형식은 기획 의도나 시청자들에게 주는 공감의 각기 다르도록 제작되고 있다. 그리하여 분장의 기법 또한 프로그램의 성격에 맞추어 연출함에 따라 좀 더 시청자들에게 느끼는 공감대를 빠르게 흡

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방송사에서 시트콤은 제작이 예능, 연애를 제작하는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예능국의 제작물은 버라이어티와 오락프로그램이 주류를 이룬다. 그 예로는 버라이어티 쇼, 코미디, 시트콤, 음악 등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리하여 초기 시트콤의 분장에서는 오락물에서 자주 사용하였던 과장되고 비사실적인 분장이 많이 등장하게 되었다.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주는 요소로 분장을 희극화 시킴으로써 과장된 분장을 보는 시청자의 즐거움에 초점을 두었으며, 과장과 비사실적인 묘사를 통하여 웃음을 자아내기엔 충분하였다. 그러나 요즘 시트콤의 형식은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20~30분이라는 기존 시트콤의 방영방식을 탈피하여 드라마 형식으로 45~55분의 방영시간을 가지고 있다. 내용의 형식 또한 미니시리즈와 같은 연결성을 두고 이야기가 계속 전개되고 있는데, 그 예를 들면 극 흐름의 연결성, 전회에서 다음회로 전환될 시점의 미술적 요인(영상화면의 구도, 의상, 분장, 소도구, 세트)들의 연결 그리고 미술적 요인들의 사실적인 표현과 묘사 등이 있다.

본 연구자는 TV 드라마의 형식 중 에서 ‘시트콤’ 형식의 TV 프로그램 연구를 통하여 ‘시트콤’의 이론적 분석과 특성 그리고 극의 이해와 작가와 연출자의 의도에 알맞은 분장의 사례를 연구하며, 또 한편 ‘시트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상황설정에 따라 나타나는 분장의 변화에 대해서 연구, 분석하여 ‘시트콤’에 관한 연구 결과물을 차후 시트콤 분장에 있어서 분장연출방법을 연구와 제시로서 분장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따라서 앞서 전술한 내용들을 학술지와 연구논문을 통한 시트콤과 분장의 이론적 연구와 연구자가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한 TV 시트콤 “안녕 프란체스카”(2005년 2월 첫 방영 ~ 2006년 2월 종영)를 통해 분장의 사례를 연구, 분석 하고자 한다.

제 2절. 연구 문제 및 연구 방법

1. 연구 문제

본 연구를 실행하기 위하여 먼저 각각의 문헌들을 기초로 이론적 배경을 구성하였다. 연구의 핵심인 시트콤의 이론적 고찰과 특성, 그에 따른 분장사례를 통하여 각 인물별 분장성격을 연구하고자 본 연구자의 분장 경험과 선행적 연구서들을 참고로 실증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물의 대상은 시트콤의 이론적 연구를 토대로 MBC TV 주간 시트콤 “안녕 프란체스카”의 작품 분석을 통해 이루어지며, 시트콤의 특성과 그에 나타나는 분장사례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살펴 볼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TV 프로그램에서 시트콤의 개념에 관하여 고찰.

연구 문제 2. 분장의 사례연구를 위한 분장의 이론적 고찰.

연구문제 3. MBC TV 주간시트콤 “안녕 프란체스카”의 기존 코미디 분장과 드라마 분장의 비교분석.

2. 연구 방법

본 논문에서의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첫째, 연구 문제 1과 연구문제 2는 선행된 연구논문과 국내외 저서 그리고 학술지를 통하여 시트콤의 이론적 배경과 분장의 이론적 개념의 연구로 이루어진다.

둘째, 연구 문제 3은 TV 주간시트콤 “안녕 프란체스카”를 기존의 코미디, 드라마 등의 분장성격과 비교를 통하여 현재 시트콤의 사례와 분장 방향을 연구 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제II장. 시트콤의 이해

제1절. 시트콤의 개념

1. 시트콤의 정의와 기원

극이란 것은 이 지구상에 사람이 산 이후 어디서나 그 형태의 차이를 보이면서 존재하였고 발전되어온 것이다. 문자 기록이 있는 이후의 것만도 그리스극, 중세극, 코메디아 델아르테, 셰익스피어, 몰리에르, 괴테, 입센, 체홉, 오닐, 브레히트, 베케트, 경극, 가부키, 판소리, 계몽주의, 고전주의, 낭만주의, 자연주의, 표현주의, 부조리극 등 많은 종류의 드라마가 있다¹⁾. 연극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다음과 같다고 말할 수 있다.

사람은 이 세상에 나오면서 자기를 표현한다. 자기를 표현하지 않고는 의사전달이 안되고 살아갈 수도 없기 때문이다. 사람은 또한 태어나면서 사회성을 갖는다. 공동체 삶을 살면서 공동의 불안을 해소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 그러기 위해 어느 일정한 장소에 모여 공동의 의식을 지낸다. 의식이 끝난 다음 차려놓은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정서적인 일체감을 맛본다. 이러한 행위가 바로 드라마, 즉 연극의 기원이었고 극장의 형태이다.²⁾ 애초에는 이러한 연극을 ‘코미디’라고 총칭했다. ‘코미디’의 어원을 살펴보면 그리스어 ‘Comos’라는 말이 흥청망청 노는 길놀이란 뜻³⁾이란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초기의 연극 내러티브

1) 김승수(1990), 『TV속의 연극』, 한국 연극협회, p.12.

2) Oscar Brockett(1979), “*The Theatre' An Introduction*”, Holt Rinehart and Winston, 4th, Ed, 김승수, 이정표,(1994) ‘다매체 시대의 한국형 시트콤’, 문화방송간, 방송 연구 논문집, p.135.에서 재인용

3) 유수열(1986), “TV 코미디의 웃음에 관한 연구”, 서강대 대학원 석사논문, p.11.

가 즐겁고 우스꽝스러웠을 것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러다가 연극행위가 점차 무겁고 어두운 주제의 내러티브까지로 그 영역을 넓히게 되면서, 그 후에는 심각하고 진지한 '비극'과 대비하여 결말이 웃음과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연극 즉 '희극'을 뜻하게 되었다.⁴⁾

희극(코미디)과 반대되는 비극은 정교하게 다듬어진 문체로 쓰인 귀족들의 문학이었다. 극중 인물과 그것을 관람하는 사람 모두가 사회의 특권계층에 속한 인물들이었다. 그리고 대개 신화로부터 내려온 비극적이고 영웅적인 인물들이 어찌 할 수 없는 질곡과 같은 운명에 열정적으로 저항하나 결국은 좌절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에 반해 희극(코미디)은 비극적 삶이 아닌 모든 사회계층의 삶을 다루고 있으며, 등장인물도 영웅적인 모습을 지닌 귀족이 아니라, 단순화되고 우스꽝스런 인물들이었다고 한다. 역사적으로 희극(코미디)은 비극과 대비되는 드라마의 한 장르로서 일상생활의 모습을 가볍게 다루면서 행복한 결말을 추구해 왔고 이러한 코미디가 드라마에 접목되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시트콤'(sit-com)이다.

'시트콤'(sit-com)은 '시추에이션 코미디'(situation comedy)의 약자로 단편적 '상황 코미디'라고 할 수 있다. 일상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어떤 코믹한 상황에서 재치 있는 말과 코믹한 행동, 몸짓, 표정, 그리고 춤과 노래 등이 어우러져 그것을 구경하는 방청객을 웃기고 시청자를 즐겁게 해주는 일종의 '코미디 쇼'이기도 하다. '시트콤'을 그냥 시트콤이라 하지 않고 '시트콤 드라마'라고 이름 붙여 방송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코미디 경시풍조와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시트콤'은 기본적으로 드라마 제작법을 그대로 따라야 하지만 여기서 덧붙여서 필히 웃음을 만들어야 한다. 갈등이 있고 따스한 사랑과 감동이 있는 동시에 강한 반전이 있는 코미디적 상황이 있어야 하며 매 순간순간 재치 있는 코믹한 대사⁵⁾등이 시트콤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으로 사례된다.

4) 송우열(1999), "TV'시트콤'의 특성에 대한 비교연구", 한양대 대학원 석사논문, p.12.

‘시트콤’은 16세기 이탈리아의 코메디아 델아르테(Commedia Dell’arte)라는 즉흥 희극 형식에서 유래가 되었다. 코메디아 델아르테는 16세기 중엽 이탈리아에서 전문적인 배우들이 당시의 전형적인 캐릭터에 맞는 가면을 쓰고 정치 사회적 이슈에 따른 그날의 주제와 간단한 줄거리를 정해 놓은 다음 노래와 춤, 팬터마임, 곡예를 보여주며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보여준 연극 장르로서 당대의 대중적인 인기가 대단하였다.

셰익스피어의 <말괄량이 길들이기>, <한여름 밤의 꿈>, 몰리에르의 <수전노>, <위선자 타르뤼프>, 로시니의 <세빌리아의 이발사>,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등이 코메디아 델아르테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고, TV가 생기면서 미국으로 건너가 인기 있는 TV 드라마 장르로 정착된 이름이 바로 ‘시트콤’이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방송가에서 불리고 있는 TV 코미디는 ‘시트콤’과 개념상 큰 차이가 있는 것이고, ‘시트콤’은 코미디라기 보단 드라마의 일종으로 봐야 하는 것이다.

2. TV 프로그램 분류상 시트콤의 위치

우리나라의 TV 프로그램 분류는 연구자들마다 다른 척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관된 분류기준이 없다. 프로그램의 유형 분류는 매우 어렵고 애매한 작업이다. 방송 프로그램의 분류기준이 다양함은 물론이고 각 기준에 따라 세분화가 가능하며 이를 운영하는 방송사에 따라 혹은 국가나 문화권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형 분류에 사용되는 기준도 그 종류가 많은데, ‘시트콤’이라는 이름 자체가 프로그램의 형식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형식을 기준으로 한 프로그램 분류

5) 주병대(1995, 12). 「연기자의 캐릭터쇼-시트콤」. 방송개발 학술지, pp32~33

법을 살펴보면 ‘시트콤’이 어떠한 위치에 서있는지 알 수 있다.

형식에 의한 분류는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기능보다는 주로 프로그램의 구조나 전달방식에 초점을 둔 것으로 ‘장르에 의한 분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스타셰프(Stasheff)와 브레츠(Bretz)는 “The Television Program”⁶⁾에서 TV 프로그램을 형식에 따라 비드라마 프로그램(non-dramatic program)과 드라마 프로그램(dramatic program)으로 크게 분류하였다. 비드라마 프로그램은 뉴스, 인터뷰, 토론, 경쟁, 여성, 어린이, 청소년, 교육, 정보, 종교, 버라이어티, 오락 프로그램으로 세분화되고, 드라마 프로그램은 연속극, 시트콤, 미니 시리즈, 특집극 등으로 나타내고 있다.

6) Stsheff and Bretz, "The Television Program", New York: Hall &Wong, 1968, pp32~48, 송우열(1999), "TV'시트콤'의 특성에 대한 비교연구", 한양대 대학원 석사논문, p.14. 재인용

<표 1> TV 형식에 따른 비드라마 분류

비 드라마 프로그램(non-dramatic program)

- 뉴스 프로그램 : 일반뉴스나 해석, 스포츠 뉴스, 일기예보.
인터뷰 프로그램 : 상대방으로부터 정보나 궁금한 것을 알아내기 위해
질의 응답하는 형식의 프로그램.
토론 프로그램 : 집단 인터뷰가 질의응답의 단계를 넘어서면 토론으로 발전
경쟁 프로그램 : 패널, 퀴즈, 게임, 콘테스트 등.
여성 프로그램 : 요리, 인테리어, 패션, 취미 등 여성의 관심을 끄는
생활정보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 사회교육,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
정보 프로그램 : 시사, 공공문제, 사회문제, 주변의 세상사를 다루는 프로그램
종교 프로그램 : 영상, 예배 프로그램, 종교를 주제로 한 토론 프로그램,
성경이나 교리 해설 프로그램 등.
버라이어티, 오락프로그램 : 노래와 춤 그리고 재담이 섞인 프로그램.
-

<표 2 > TV 형식에 따른 드라마 분류

드라마 프로그램(dramatic program)

- 연속극 : 일일 연속극, 주간 연속극 등.
시트콤(sit-com) : 1970년대 미국 텔레비전을 지배하던 형식으로 가족프로그램.
미니 시리즈 : 다양한 소재의 구성으로 이루어지며 약 3개월의 방송으로 이루어짐
특집극 : 특집으로 수시 편성되는 드라마.
-

이렇듯 시트콤의 발생지인 서양에선 일찍부터 ‘시트콤’을 드라마 장르로 분류하고 있다. 이와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방송위원회의 “프로그램 유형별 분류기준”⁷⁾을 지표 삼아 프로그램을 분류하고 있는데 시트콤을 그 분류상 코미디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시청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1997년 방송위원회에서 전국 13세 이상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프로그램 유형분류에 관한 일반 시청자 의견 조사결과⁸⁾는 시트콤을 하나의 독립된 장르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34.8%), 30.0%가 ‘코미디’ 장르, 22.2%가 ‘드라마’ 장르로 봐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방송위원회의 프로그램 유형 분류가 시트콤에 있어서 일반인들의 납득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7) 현재 사용되고 있는 방송위원회의 “프로그램 유형분류기준”은 우선 국내 학자들과 방송사 및 외국의 분류기준,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프로그램 유형분류 기준설정에 관한 연구토론회”결과를 토대로 마련되었다.

8) 방송위원회(1997.7), 「프로그램 분류방식과 프로그램 등급제에 관한 시청자 의견조사 보고서」.

제 2절. 시트콤의 변천과정

1. 서구 시트콤의 발전과정

TV가 등장하기 전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은 라디오가 유일한 매체였다. 이러한 라디오 방송은 광고수익에 의존하였으며 이러한 방송국 운영 시스템은 TV 시대에 까지 이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라디오는 TV에 적합한 프로그램 형식이나 편성정책의 모델이 되었다. 라디오와 텔레비전, 두 매체의 명백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TV 방송은 라디오의 연장이었다. 라디오 산업이 발전시킨 방송의 기능과 프로그램 형식 그리고 편성정책을 이어 받고 있는 것이다.

1930년대에서 1950년대 중반 사이의 미국 라디오의 고전기의 프로그램들은 청취율과 광고 수주의 차원에서 가장 성공적이었다. 1920년대의 프로그램 오케스트라 단원과 아나운서들 사이에, 아마추어나 잠깐 출연한 코미디언 사이에, 또는 음유시인이나 만담가들이 나와서 노래도 부르고 사람들 사이에 오가는 농담이나 우스갯소리를 하는 것이 대부분 이었다. 그런데도 당시 사회에선 대단한 관심을 끌었다. 청취자들은 라디오 수신기를 구입하면 무료로 오락물을 수신할 수 있었으며, 라디오 방송사들은 광고 수입 면에서 다른 경쟁적 매체들에 비해 월등히 유리한 지점을 확보 할 수 있었다. 실제로 공황기 동안 다른 오락물들이 침체되었던 것에 반해 라디오는 성황을 이루었고, 따라서 1929년에는 3가구 중 1가구가 라디오 수신기를 보유하고 있었다.⁹⁾ 이리하여 TV '시트콤'은 1950년대 텔레비전이 라디오를 대체함에 따라 1930~1940년대에 미국에서 정착되었던 '라디오 시트콤'이 그 터전을 옮기면

9) 송우열, 전계논문, p.17.

서 탄생하여 초기의 전통적인 가정을 담은 시트콤, 1960년대 자연 회귀를 담은 시트콤, 1970년대 사회문제를 다룬 시트콤, 1980년대 즐거움과 교훈을 주는 시트콤으로 다양한 발전을 해왔다.¹⁰⁾

미국에서는 1948년과 1952년 사이에 그리고 영국에서는 1955년 이후에 TV가 가정에 뿌리를 둔 주요한 매체로서 라디오를 대체하기 시작하였다. 전후시기에 미국의 3대 라디오 네트워크들 사이에 경쟁이 격화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양상은 ABC가 텔런트 빙 크로스비(Bing Crosby), 아보트(Abbott), 코스텔로(Costello), 그로초 막스(Groucho Marx)등을, CBS가 NBC로부터 텔런트 고슨(Gosden), 코렐(Correll), 잭 베니(Jack Benny), 번스(Burns), 알렌(Allen), 레드 스킴롤(Red Skelton), 에드가 버겐(Edgar Bergen)등을 스카우트해 간데서 잘 보여진다.¹¹⁾ 이와 같은 경쟁은 라디오 연예분야에서 탁월한 지위를 얻으려는 희망뿐만 아니라, 이들 네트워크의 TV 서비스를 위해 인기 있는 텔런트를 확보하는 것이 주된 동기였다. 이 기간 동안 방송사업자들은 라디오부터 얻은 이익을 TV에 투자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새로운 매체는 광고주들에게 매우 인기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1950년 까지 미국 TV 네트워크에는 사실상 이용할 수 있는 광고시간이 부족하였다.) 라디오 코미디의 인기배우들은 청중들에게 오랜 시간 동안 친숙하였기 때문에 특히 그들에 대한 수요가 많았으며 어느 정도의 저항이 있은 후 일단 TV의 미래가 더 이상 의문스럽지 않게 되자, TV에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TV가 방송 오락물의 매체로서 라디오의 기능을 점차적으로 인계 받기 시작했고, 라디오는 TV의 우세와 함께 가정과 떨어진 청취형태로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는 주로 1950년대를 거치며 점차 가속화 되었다. 자동차나 휴대용 라디오가 널리 보급되면서 오락물로서의 라디오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생겨났고, DJ 프로그램의 형식이 1930년

10) 강경화(2000). “텔레비전 시트콤에 나타난 여성상에 관한 연구”,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pp.33~34

11) 송우열, 전계논문, p.24.

대와 1940년대의 대다수 라디오 형식을 대체하게 되었다. 라디오 코미디 프로그램의 수는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예를 들어, 1956년 1월 방송 중이었던 프로그램은 “The Charlie McCarthy Show” 뿐이었다.¹²⁾

라디오 시트콤은 TV 프로그램 형식에 대해 보다 중요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 1945년부터 1959년까지 다수의 시트콤들이 라디오에서 TV로 이동하였다.

1951년에 방송된 “I Love Lucy”는 CBS를 20여 년간 시청률 1위 네트워크로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1955년에는 “The Honeymooner”와 “You’ll Never Get Rich” 등의 2개의 히트작이 나왔으며 1960년대에 들어서는 “The Dick Van Dyke Show”가 새로운 시트콤의 장을 열었으며 1963년의 “The Beverly Hillbillies”로 이어졌다. 이때의 인기 소재는 주로 전형적으로 똑똑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과의 대립, 사투리나 속어의 사용, 사회의 세태를 풍자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었다.

1964년에는 판타지 시트콤이 등장하게 되는데 “The Addams Family”, “The Monsters”, “Bewitched” 등이 히트를 거두었다.

1970년대는 시트콤의 대혁명이 일어났던 시기이다.

해리워터(Harry Water)에 따르면 1970년대의 시트콤들은 보다 격렬한 어투와 냉혹한 감정, 사회적 이슈 때문에 극의 분위기가 딱딱하다고 여겨진 점이 없지 않았으나 자기주장을 자신 있게 표출하는 등장인물들의 자신감과 극적 구성의 탄탄함으로 그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키는 데 성공하였다고 한다.¹³⁾

1973년에는 방청객을 배제하고 로케이션(Location)촬영과 세트의 정교함을 돋보였던 “M.A.S.H”가 성공을 거두었다. 성공의 큰 장점은 종래의 시트콤처럼 보이지 않았던 점이다. 다른 일반드라마처럼 진지하

12) Arthur Wertheim(1979), “Radio Comedy”,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p.384.

13) 김승수, 이정표,(1994) ‘다매체 시대의 한국형 시트콤’, 문화방송간, 방송 연구 논문집, p.136.

고 심각한 이야기들을 다룸으로써 이전의 시트콤들과 차별화를 시도하였고 이 때문에 ‘블랙 유머(Black Humor)’라는 말을 들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보다 도덕적이고 멜로 드라마적인 성향을 보여주며 인간적인 면을 강조해 나갔는데 이는 당시의 시청 층의 세태를 반영한 것이었다.

1974년에는 주인공이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는 자유스러운 성격 설정이 성공원인이 된 “Happy Days”가 히트를 했다. 이 시트콤이 성공하면서 성인 및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사회성 있는 시트콤인 ‘Social Sitcom’과 전통적 가치나 가족 중심의 이야기를 다루는 ‘Domestic Sitcom’ 두 개가 주류를 이루었다.

1978년~1979년에는 “Three’s Company”, “Laverne and Shirley”등이 시청률의 선두를 차지하였다.

1983년~1984년에는 14개의 시트콤이 나왔으나 7개가 실패함으로 인해 불황기를 맞았다. 하지만 그중 1984년 첫 방송이 된 “The Cosby Show”는 1년여 만에 전 프로그램 시청률 2위를 기록하여 NBC를 미국 최고의 방송으로 만들어 주었다.

1990년대 미국의 시트콤은 ‘춘추전국시대’를 이룬다. 시트콤의 소재는 전과는 달리 대단히 냉소적으로 바뀌는 양상을 보이는데 어려운 경제 생활 속에서 아무렇게나 사는 가족을 소재로 많이 삼았다. “Married with Children”, “Roseanne”, “The Simpson”등이 대표적이다. 전통적인 가족시트콤의 인기도 여전히 꾸준하였는데 “Home Improvement”은 집수리, 보수, 유지하는 법을 다루어 휴일이면 집안 구석구석을 보수하는 미국인들에게 드라마에다가 새로운 정보까지 주어서 시청의 즐거움을 배로 만들어 주었던 프로그램이다. 1990년대 말에 갈수록 시트콤은 더욱더 다양하게 발전되었다. 이는 사람들이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남들과는 차별화된 자기만의 독특한 기호가 확실해지면서 모든 생산품이 선택범위가 다양해진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 때문에 현재 미국에서 상영되는 시트콤은 그 소재가 매우 세분화 되고 다양화 되어 있다.

2. 한국 시트콤의 발전과정

1) 드라마의 발생과 TV시대

일제하에서부터 시작된 라디오 드라마는 무대극의 극본을 그대로 대사로 옮기는 수준의 단순한 활자 극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것들이 군 정기를 거치면서 우리의 방송에 미국식 드라마의 형식이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러한 미국식 라디오 드라마는 해방 후 첫 방송극인 “화랑관창”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사극과 현대적 멜로·코미디가 연속극으로도 시도되기 시작하였다. 미국인 랜돌프(Randolph)의 “똥똥이의 모험”은 어린이 대상이기는 하였지만 어른도 칭취하는 드라마로 3년간이나 인기리에 방송되었다. 1948년에는 방송용 드라마 극본이 처음으로 현상 모집 되었으며, 남녀성우가 등장하는 입체낭독이 등장하여 드라마적인 분위기를 보다 본격적으로 갖추어갔다. 1956년에 방송된 첫 성인대상 연속극인 “청실홍실”, 1957년의 첫 라디오 일일연속극인 “산 넘어 바다 넘어”, 1959년 미국의 “화성으로 부터의 침입”을 본 뜬 “架空실황중계” 이후부터 라디오 드라마는 라디오방송의 가장 주요한 인기 품목으로 성장하였다. 이 당시 인기 있었던 라디오 드라마들은 영화 제작으로도 연결되어 초보적인 ‘창구효과’를 내기도 했다.

1960년대 초기를 지나면서 속속 개국한 라디오 방송사들은 중반에 들어가면서 제한된 광고비를 놓고 치열한 청취율 경쟁을 시작하기 되었다. 이 경쟁의 핵심은 역시 드라마에 있었다. 1960년대 초기에 각 방송사들은 요일별로 30분씩 잘라 각종 오락물 시리즈를 편성했으나 청취율 경쟁이 치열해지자 거의 매시간 마다 하나 혹은 둘의 연속극을 편성하는 모양으로 바뀌어갔다. 특히 MBC는 1967년 4월부터 7시에서 11시까지 각 시간대별로 정시에 연속극을 편성하고 0시 연속극으로

명칭 자체를 통일했으며 모두 6개의 드라마를 편성하였다. TBC나 DBS 방송국도 많은 양의 드라마를 편성하여 1966년부터 1968년까지 매년 평균 150편이 넘는 드라마를 방송하였다. 이러한 라디오 드라마는 소재가 가족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많았다. 이것은 미국 라디오의 시트콤과 어느 정도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라디오 드라마는 미국 라디오의 시트콤과 다르게 코믹한 요소 보다는 훈훈한 감동을 내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시대적 상황에 맞게 새로운 조국건설을 위한 계몽적 교훈을 끌어내는데 주력 하였다.

최초의 TV 드라마는 연극 연출가 최창봉이 연출한 극단 ‘제작극회’ 소속의 연극인 김경옥, 오사랑, 최상현 등이 첫 출연자가 된 호우스홀 원작의 “사형인”이었다. 이후 우리 드라마는 주간극, 단막극의 형식의 드라마가 중심이 되었다. 작가는 라디오와 영화, 연출자는 연극, 연기는 주로 연극과 영화 출신자들 이었다. 당시의 드라마는 전부 생방송이었다. KBS-TV 최초의 드라마는 1962년 1월 19일에 방송된 “나도 인간이 되련다.” 이었고, 그 이후 TV 드라마는 홈드라마와 멜로드라마가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홈드라마가 강세를 보여주곤 하였다.

2) TV 드라마의 정착과 시트콤의 태동

1964년 동양TV(TBC-TV)가 개국 되면서 본격적인 TV 드라마의 개화기를 맞게 된다. 생방송으로 진행된 “나는 나대로”, “젊음 베르테르의 슬픔”등이 방송되었는데 비록 도중에 막을 내리는 실패가 있었지만 차후 70년대의 일일연속극 전성시대의 막을 여는데 기여했다. 그리고 1969년 MBC-TV가 개국되고 일일연속극 방송이 점차 100회 안팎을 보여 정착될 조짐을 나타내곤 하였다.

1960년대 말 MBC-TV가 개국되면서 일일 연속극은 대성황을 이룬다. 특히 1972년 가을 개편 때는 TV 3사의 일일 연속극이 각각 4편으

로 증가되어 “ TV 드라마 홍수시대”에 접어들기 시작했다. KBS의 “여로”, “과도”, “꽃피는 팔도강산”, TBC의 “아씨”, “딸”, MBC의 “새 엄마” 등 250회를 상영하는 장수 일일 연속극 프로그램이 대거 등장하여 세간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았다.

1970년대는 드라마의 황금시대로 접어들었다. 드라마의 대형화와 특집 드라마의 제작이 활성화가 이루어져 드라마 왕국으로 접어드는 시기였지만 20명 안팎의 방송작가가 11편의 일일 연속극과 10여 편의 주간 연속극을, 그리고 몇 안 되는 텔런트로 전 방송국의 일일 드라마를 제작해야만 했다.

1980년대는 언론 통제합과 컬러 방송이 시작되었다. 방송체제도 공영으로 전환되면서 TBC, DBS(동아방송)등이 KBS에 강제 통합되었다. 80년대는 그 동안의 일일 연속극 중심의 편성에서 프로그램의 대형화가 일어난다. 87년 6월 민주화 운동을 전후해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반기에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은 ‘TV 문학관’, ‘미니 시리즈’ 등 단막극이 부활되고 방송기술의 발달로 인해 점차 야외 로케이션(Location)이 이루어 졌는데 이것은 시청자로 하여금 실체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이 시대 드라마는 일일 연속극의 퇴조가 뚜렷하였고 야외 촬영 및 드라마의 대작시대가 열렸다.

1986년 서민들의 생활 속 애환을 정감 있게 담아낸 MBC “한 지붕 세가족”, 1990년 KBS의 “서울 뚝배기”, 이후에는 같은 고향 친구이면 서로 인생관이 전혀 다른 고집불통의 두 남자와 그 자녀들이 벌이는 사랑과 폭소의 “마포 무지개”, 전산기업 사원과 간부를 중심으로 샐러리맨들의 삶을 그린 “TV 손자병법”, 가정적 규율과 성격이 다른 두 가정이 사돈관계를 맺으면서 일어나는 희비극을 빠른 템포로 그려 폭소를 자아낸 MBC의 “사랑이 뭐 길래”등이 대단한 인기를 끌었다.

1990년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그 다음해 민방 서울방송이 태동하여 공민영시대를 열었고, 종합 유선방송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1995년

에 본 방송을 개시했고, 지역민영방송이 개시되었으며, 통합 방송법 제정이 계속 미뤄지면서 무궁화 위성이 발사되는 등 다 매체, 다 채널 시대가 본격 개막되었다. IMF로 인해 방송국은 처음으로 적자의 늪에 빠지게 되고 케이블 TV의 경영자들은 경영난에 허덕이다가 급기야는 도산, 매각 등으로 진통기를 맞기 시작한다. 그동안 경외 시 되었던 방송 프로그램의 원가개념과 비즈니스 개념이 제작현장에서도 대두되기 시작하고 가장 많은 제작비를 사용하는 드라마에 대한 경제성 논의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최고의 오락 콘텐츠는 드라마이고 방송국간의 ‘드라마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시트콤 장르의 전개는 1990년대 들어서 활발하여졌다. 당시 SBS는 후발업체답게 기존의 프로그램 형식을 지양하고 새롭고 독특한 형식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기 위해 고심했다. 1991년 12월 새로운 민영방송국인 서울방송(SBS)이 개국하게 되면서 기존의 방송은 시청률 경쟁에서 기선을 제압하고자 더 한층 다양한 드라마 제작에 힘을 쏟게 된다. 드라마의 양적 증가에다 졸속 제작으로 인한 소재 빈곤, 가정파탄과 비뚤어진 애정행각을 그리고 있다고 비난을 받아왔던 드라마들이 점차 코믹스런 홈드라마나 가정 드라마 쪽으로 방향을 돌리기 시작했다.

SBS는 코미디, 쇼, 드라마가 융합된 실험적 형태의 프로그램인 “사랑은 생방송”을 제작 편성하였고, 방송시작을 알리는 애국가 순서에서도 기존처럼 하지 않고 국악으로 편곡하여 방송했으며, 뉴스시간도 통념상 굳어버린 9시가 아니라 8시에 편성을 하는 실험을 보였다. 일반 오락 프로그램에서 각 장르의 혼합을 사용해서 그간 방송계의 관행으로 여겨졌던 쇼 프로듀서는 쇼만, 교양 프로듀서는 교양만, 드라마 프로듀서는 드라마만 제작하던 풍토를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여기에서 파생된 프로그램이 1993년 봄에 방송되기 시작한 ‘오 박사네 사람들“(93년10월24일~94년4월17일)이었는데 이는 시트콤이라는 타이틀

(Title)을 걸고 시작한 우리나라 최초의 프로그램 이었다. 치과의사인 '오지명'을 중심으로 병원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다룬다. 포맷(Format)은 미국의 시트콤 "The Cosby Show"에서 왔으며, 처음엔 드라마라기 보단 코미디 이었다. 이어 "오 경장"(93년10월24일~94년4월17일)이라는 경찰서를 중심으로 한 시트콤이 제작되었다.

SBS에서 주도한 '시트콤'은 이후 타 방송사의 '시트콤'에 대한 전형들을 마련해 주었는데 그것은 기존 드라마에서 엄격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중견 텔런트들을 희화화하여 웃음을 유발하는 방식들이 그 중 하나이다.

SBS에서 시도한 '시트콤'이란 형식이 자리를 잡게 되자 KBS와 MBC도 '시트콤'을 제작 편성하기 시작했다. KBS에서는 "합이 셋이요"(93년10월24일~94년2월10일), MBC에서는 구성원이 전혀 다른 두 가정을 소개로 한 "김가 이가"(93년10월24일~94년4월10일)를 제작하였으나 시청자의 호응을 얻지 못하여 곧 종영하였다. 조기 종영하며 막을 내렸던 각 사의 시트콤은 1995년7월10일 다시 SBS에서 "LA 아리랑"을 방영함으로써 제작되기 시작한다. LA 교민가정을 소재로 제작한 "LA 아리랑"은 전통적인 미국 시트콤의 구조대로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세대 간의 갈등과 행복을 그 중심소재로 잡았다. 대가족인 김 변호사의 가정을 중심으로 특색 있는 인물들이 등장하여 짜임새 있는 재미를 주었는데, 시청률에서나 프로그램의 완성도 측면에서 시트콤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인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이 성공에 힘입어 MBC와 KBS도 시트콤을 재편성하게 되었는데 MBC는 "두아빠", KBS "간 큰 남자"를 방영하였다. 그러나 역시 별다른 인기를 끌지 못하였다. 유일하게 시트콤을 인기프로그램으로 정착시킨 SBS는 극종반까지 인기몰이를 하던 "LA아리랑"을 일단 과감하게 내리고 새로운 포맷의 시트콤을 편성하였다. 1996년 지방자치 시대가 개막을 알리자 당시 대만과 영국에서 인기였던 프로그램 형식을 참고로 하여 3대

로 구성된 민선시장 가족의 세대 간 갈등과 민선시장의 고층을 소재로 한 “아빠는 시장님”(96년7월1일~96년11월)을 제작하였다. 이어 제주도 목장을 배경으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기획의도를 가진 “OK 목장”을 제작하였다.¹⁴⁾

1990년대 중반 이후 시트콤은 가족 시트콤과 로맨틱 시트콤을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기존의 제작과정을 통해 시트콤 장르의 제작 지식을 확보한 탓도 있지만 새롭게 등장한 시청자 계층이 더욱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1990년대는 신세대가 대중문화의 주요 소비계층으로 부상하면서 대중문화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친 시기로서 텔레비전은 그들의 감성에 맞추어 트렌디(Trand) 드라마와 분절화된 단위들로 구성된 버라이어티 쇼 등의 다양한 장르를 선보였는데 20분 내외로 구성된 시트콤 역시 분절화된 프로그램 형식으로 심각한 것을 싫어하는 신세대 취향에 맞아 인기 장르가 되었다. 다시 말해 시트콤은 이데올로기의 억압과 정치적인 경향으로부터 벗어나서 개인적이고 피상적인 문화형식을 선호하는 신세대들에게 부합되었다¹⁵⁾고 볼 수 있다.

14) 송우열의 전계논문, pp.32~34

15) 주창윤(1999), 「로맨틱 시트콤의 장르 관습과 미학」, 『방송심미』, 봄호, pp.344~345

<표 3> 한국 시트콤의 역사

	MBC	KBS	SBS
1990년 ~ 200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자셋 여자셋 . 집 프 . 가문의 영광 . 논스톱 . 뉴 논스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을 만들어 드립니다. . 아무도 못말려 . 멋진 친구들 . 반쪽이네 . 마주보며 사랑하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박사네 사람들 . 오경장 . LA아리랑 . 아빠는 시장님 . 순풍산부인과 . 나 어때 . 행진 . 오렌지 . 랫츠 고 . 골뱅이 . 뉴욕 스토리 . 여고시절 . 허니허니
2001년 ~ 200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스톱3,4 . 세친구 . 연인들 . 두근두근체인지 . 미라클 . 조선에서 왔소이다 . 아가씨와 아줌마 사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원 사람들 . 달래네 집 . 달려라 울 엄마 . 방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수 없다 . 똑바로 살아라 . 대박가족 . 압구정 종갓집 . 혼자가 아니야 . 형사
2005년 ~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스톱 5 . 안녕프란체스카 . 레인보우 로망스 . Soulma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드미스다이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엽거나 미치거나

제 3절. 시트콤의 특성

과거의 시트콤은 고정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에 대한 에피소드에 초점을 맞추며 30분짜리 시리즈로 매주 똑같은 인물로 매회 다른 에피소드를 벌여나가며 복잡하게 얽힌 에피소드라도 30분 내에 해피엔딩으로 해결된다. 데이비드 그보트(David Gvot)는 시트콤이 과거의 희곡에서 시작한 장르이긴 하지만 시트콤은 이미 완성된 구조에서 시작하여 그 구조를 변화시키지 않고 끝이 난다는 점에서 무에서 출발해 유를 창조하는 과거 희곡과 차별성을 지닌다고 하였다.

Selby와 Cowdery 는 이런 TV 시트콤의 형식적 특성¹⁶⁾을 몇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30분 정도의 방영시간을 갖는다.

둘째, 가정이나 직장과 같은 일반적인 상황을 무대로 한다.

셋째, 등장인물의 수가 제한되어 있다.

넷째, 주간단위로 이루어지는 유머스러운 문제들을 다룬다.

다섯째,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보편성을 토대로 한다.

하지만 현재의 시트콤의 형식적 특성은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위와 같은 설명엔 한계점을 나타내어 주고 있다.

첫째. 30분가량의 일일시트콤이 편성되기도 하지만 드라마 형식의 시간을 가진 45~55분가량의 방영시간을 가진 시트콤이 늘어나고 있다.

둘째. 과거의 고정된 등장인물수와는 달리 매회 마다 게스트(Guest)를 깜짝 출현(Cameo)시키는 등의 변수를 두고 있다.

16) 명수현(2005). 『한국시트콤의 장르적 분석』.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석사논문. p.24.

셋째. 현재의 시트콤은 일일시트콤이 등장하였고 미니시리즈 형식의 주간 시트콤도 주를 이루고 있다.

넷째. 시트콤의 소재는 보편성에만 한정을 두고 있지만은 않다. SBS의 “혼자가 아니야”와 MBC의 “두근두근 체인지”, “안녕 프란체스카” 등은 일반인들이 흔히 경험할 수 없는 판타지적인 내용의 시트콤이다.

시트콤의 장르적 특징 중에 또 하나는 웃음소리이다. 모든 시트콤에는 웃음소리가 들어가 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시청자를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는 무대 현장에 있는 듯 느낌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시청자보다 먼저 웃음소리가 나오게 함으로써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몰입하도록 유도한다.

셋째 공개녹화를 할 경우 연기자가 흥이 나서 극적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이렇게 시청자의 웃음을 코미디 현장에서 유도하는 방청객의 역할은 응원단과 비슷하다. 이들의 웃음과 박수 소리가 자연스럽게 시청자들에게도 전이 된다. 미국 시트콤에 사용되는 웃음소리 삽입은 바로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해된다. 그렇지만 장르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듯 요즘은 웃음소리 자체를 배제한 시트콤도 등장하고 있어 관객의 웃음소리가 시트콤의 특징을 설명해주는 단적인 요소라고 보기엔 한계점이 따르며 Selby와 Cowdery의 TV 시트콤의 형식적 특징을 정의한 것처럼 지금의 시각에선 그 한계점이 과거의 시트콤과 현재 시트콤에 있어서는 많이 달라진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2004년 MBC에서 방송된 ‘두근두근 체인지’는 리얼리티를 기본으로 하던 기존의 한국시트콤과는 달리 새로운 소재를 갖고 등장 하였다. 신비스런 샴푸로 머리를 감으면 추녀의 주인공이 미녀로 변화하는 구조

를 통해 만화 같은 환상적인 이야기를 시트콤에 접목시켰다. 그 후 판타지적인 시트콤이 다시 등장 하였는데 2005년 MBC에서 방송을 시작한 ‘안녕 프란체스카’는 흡혈귀들의 한국 정착기를 소재로 이색적인 소재의 주인공들을 통한 인간보다도 더욱 인간적인 정을 소개하여 많은 마니아층을 만들어 내었으며 시트콤의 새로운 소재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제 III 장. TV 시트콤 “안녕 프란체스카”에 대한 분장 사례연구

제1절. 분장의 이해

1. 분장의 개념

분장(扮裝)은 한자로는 이 음절이 각각 ‘나눌 분(扮)과 ’갓출 장(裝)의 합성어로 구성되어 있다. 또 영어로는 ‘make’와 ‘up’의 합성어인 ‘make-up’으로 표기된다. 이는 “서로 나누어진 것을 만든다는, 또는 ”이루어진다”의 의미나, “나누어진 것을 알맞게 챙겨 완전히 갖추도록 한다”¹⁷⁾는 뜻으로 주로 해석되고 있다.

분장(扮裝)은 “배우나 무용가가 극중 인물을 표현하기 위하여 화장을 하고 의상, 가발, 가면, 모자, 신발 등을 착용하는 일”이며, “대사나 연기활동을 하기 전에 관객의 시각을 통하여 그 역할의 시대, 지역, 연령, 직업, 지위, 성격 등을 설명하기 위한 중요한 극적 요소”라고 정의할 수 있다. ‘make-up’은 분장이라는 뜻이 강한 단어이다. 그러나 화장품 제조회사에서 상품을 파는 미용사원들에게 화장을 가르쳐 주며 ‘beauty make-up’이라고 해야 하는 화장을 ‘beauty’를 생략하고 ‘make-up’이라고 불러온 전례로 최근 분장과 화장이 혼용되고 있으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구별이 된다.¹⁸⁾

분장, 변장, 화장과는 각각 비슷하지만 다른 의미를 두고 있다. 변장(變裝)은 “일정한 목적으로 복장의 외모를 변화시키는 일”이라고 정의

17) 강대영(1998), 『한국분장예술』, 지인당, p.8.

18) 이미애(2003), “성격분장의 유형별 이미지 연구”, 한성대 석사학위 논문, p.5.

되며 그 의미 역시도 차별화 되는 데, 변장은 “자체집단의 독창성을 상징하는 본래의 목적을 파괴하고 의도적으로 표현되는 경우의 복장의 일반적인 상태를 말한다. 한국에서는 분장(扮裝)이라는 용어로 쓰이며, 연극, 영화배우들의 경우에서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는 범죄수사의 수단으로서 수사관이 인상, 착의, 언어, 동작 등을 변화시켜서 신분이 노출되지 않게 하는 경우와 범죄자가 잠적을 목적으로 여장, 남장, 개장(수염, 점 만들기)등을 하여 은신하는 경우가 있다고 정의되며, 화장(化粧)은 ”화장품을 바르고 매만져 곱게 꾸미는 행위“라고 정의된다. 이 같은 용어의 정의에 의하면 작품을 위한 표현수단으로 이용될 때 분장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make-up’의 의미를 얼굴을 꾸미는 것으로만 국한해서 말하기도 하지만, 보다 넓은 의미의 분장에 대해서도 이해해야 할 것이다. 한자와 영어의 구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는 얼굴에만 국한된 작업을 지칭하는 의미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무대공연의 각종 방송제작물, 또는 이벤트의 외형 물까지 그리고 외형뿐만이 아니라 생활 속의 배우와 작업속에서의 배역 인물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개인의 이원성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인체에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작업 즉, 얼굴 분장뿐 아니라 헤어스타일, 의상, 소품, 장신구 등을 완전히 갖추어 작품 속의 배역 인물로 변모시켜 주었을 때 진정한 의미의 분장이 완성 되었다.¹⁹⁾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촬영 현장의 상황은 분장과 미용담당, 그리고 각 연기자들의 코디네이터와 함께 분장사가 분장이 끝나면 현장에서 코디네이터들이 분장사를 도와 분장의 보존 상태를 관리해 주는 현상이 많다. 그리고 의상, 소품, 조명, 무대디자이너 등과 함께 스타일이나 색조 분위기 등에 대해 상호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작품의 분위기를 표현하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진정한 의미의 분장은 작품 내에서 독자적으로만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을 이루는 각각의 파트별 요소들이 하나로 잘

19) 이미애, 전계논문, pp.5~6

어우러져야지만 분장의 내용을 전달하는데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2. 분장의 기원

서양 연극사(演劇史)에 의하면 기원전 고대 그리스의 Dionysos (Baccus)제전(祭典)에서 그 제(祭)를 모시던 제사장이 오늘날 배우의 시초였고, 그 제사장의 얼굴에 포도주를 만들었던 술 찌거미 나 풀잎으로 장식 하였다는 것이 분장의 시초였다고 하겠다.²⁰⁾

분장의 기원은 미적인 성적 본능의 만족 수단, 주술적·종교적 욕구의 충족 수단, 성별·사회적 지위·소속 집단의 표시수단, 신체의 보호 또는 보존을 위한 실용적 수단 등의 학설²¹⁾이 있으며, 원시적 분장은 기원전 3200년경의 이집트 벽화와 유물 등에서 백납을 이용하여 얼굴을 착색하고 검은색과 파란색의 아이새도(eye-shadow)를 사용한 것처럼 원시 사회의 종교의식에서 주술적 효과를 나타내기 위하여 가면이나 채색을 이용한 것²²⁾이었다고 밝혀져 있다.

화장을 한다는 것과 분장을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지만 화장의 발달과정을 거슬러 올라가면 분장의 발달과정도 엿 볼 수 있다. 화장의 발달과정을 살펴보면 분장을 지칭하는 영어의 변화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영어의 'painting', 'toilet', 'dressing'등인데, 'make-up' 이라는 용어가 최초로 사용된 것은 17세기 초, 영국의 시인 리처드 크랏슈(Richard Crashou)에 의한 것이나 이보다 앞서 16세기 영국의 문호 셰익스피어(Shakespeare)의 희곡에 'painting'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 이것은 16세기 이탈리아에서 전래된 짙은 화장을 가리켰으며 16~17세기를 통하여 연백(鉛白)을 원료로 만든 분을 '페인팅

20) 장우식(2006). 「분장 분석론」, 한성대 뷰티예술학과 교재. p.11.

21) 김덕록(1998), 『화장과 화장품』, 도서출판답게, p.5.

22) 김봉천(2001), “한국 TV 드라마의 성격 분장에 관한 연구”, 한성대 석사학위논문, p.7.

(painting)²³⁾이라 지칭하기도 하였다.

분장의 발달사는 조명기술의 발달사와 시작을 같이 하게 되었는데 연극 무대가 노천에서 실내로 옮겨지면서 공연분장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당시 분장은 어두운 실내를 밝히기 위해 쓰인 조명이 배우의 얼굴을 창백하고 부자연스럽게 보이게 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얼굴에 혈색을 부여하고 입체감을 주는 정도였다. 이후 분장은 르네상스 시대 무대 예술이 다양화되면서 더욱 발전되어 귀족의 보호 아래 대규모 전문극단이 출현하였던 영국 엘리자베스 왕조 시대에는 극장·무대 장치·대본·의상 및 소도구 등 배우들의 시각적 요소가 대단히 중요시 되었다²⁴⁾. 이리하여 조명에 있어서 집사광은 인물을 평면화로 강조돼 보이고, 이로 인해 보다 자연스러운 상태를 찾으려는 노력이 오늘날의 공연분장 발달의 시작이 된 것이다.

조명에 의해 배우와 관객과의 거리가 넓어져서 시각의 감지(感知)한계를 넘을 때 우리는 배우의 얼굴 윤곽인식이 힘들게 느껴지며, 또한 조명의 집사 광에 의하여 평면화된 얼굴에 보다 자연스러운 상태를 찾아내려는 노력이 오늘날 무대분장의 새로운 기법의 시작이 되었다. 피부의 색조나 확실한 윤곽을 만들어 내는 방법이 연구되어, 연극에서 요구하는 인물의 캐릭터(Character)나 극적갈등의 성격대비(性格對比)를 표현해 내려는 노력들로 인해 근대 분장술의 발전을 가져왔다²⁵⁾. 이와 함께 시간이 흘러 시대극이 생기게 되었고, 극의 재현과정에 있어서 분장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었으며, 영국과 프랑스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 지역의 공연이 활발해짐에 따라 분장술의 발전도 가져오게 되었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의 본격적인 분장은 외국으로부터 신극이 유입되던 근대 전환기에 시작되었다. 전통적 소리극(唱劇)을 대표하는 판소리가 맨

23) 이미애, 전계논문, p.9.

24) 김봉천, 전계논문, p.7.

25) 박수명 외, 「영상미술 세계의 이해」中, MBC미술센터 전 이사.

무대로서의 야외 마당에서 시행되었던 것과는 달리 천막을 친 가설 극장으로, 또는 전문 연극용 극장으로 세워진 원각사 같은 실내 극장에서 공연이 이루어지면서 연기자들의 분장이 요구되게 되었다. 즉, 이러한 초기의 소박한 분장은 여성의 경우에는 화장을 짙게 한 모습으로, 남성의 경우에는 서구적 모습의 미남자로 분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것이 확실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분장을 무분별하게 수용²⁶⁾하는데 그치지 못하였으나 현재 와서는 우리고유의 분장법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분장의 종류

분장은 크게 나누어 무대분장과 영상분장으로 나눌 수 있다. 무대분장은 무대에서 발표되어 행해지는 분장을 말하며 객석과 무대의 거리에 비례하여 분장의 과장여부와 강약이 결정지어야 되는 유의점이 있다. 영상분장은 영화나 TV에 비쳐지는 모든 피사체를 영상이라 말하며 이의 구분은 영화분장과 TV분장으로 나눌 수 있다.

분장의 종류는 연구자에 따라 다르다. 또 다른 하나의 구분은 아래와 같다.

기능에 따라 광의와 협의, 표현방법에 따라 ‘일반분장’과 ‘성격분장’, 안료·기법에 따라 ‘평면분장’과 ‘입체분장’·연출공간에 따라 ‘무대분장’과 ‘영상분장’, 성격에 따라 ‘일반분장’과 ‘특수 분장’으로 나눌 수 있다.²⁷⁾고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연극과 같은 무대 예술에서는 인물의 시각적인 효과와 배우와 관객 간의 거리에 따라 분장이 짙고 연함이 달라진다. 관객이 배우의 모습을

26) 강대영, 전계논문, pp,10~12.

27) 김봉천, 전계논문, p,9.

보다 명확하고 확실하게 보이도록 윤곽을 뚜렷하게 하는데, 이와 같은 방법을 대극장이면 더욱 진하고 크게 그리며 극장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관객과 가까워지므로 분장의 농도를 약하게 이목구비를 표현해줌으로써 사실감 있게 관객들에게 다가가는 것이다.

무대 분장은 극의 종류에 따라 연극·오페라·뮤지컬·성극·마당놀이·무용·이벤트 등의 분장으로 나뉜다. 연극 분장이나 오페라 분장은 인물의 이목구비를 관객에게 보다 선명하게 보이는데 초점을 두며, 고전무용이나 발레 분장은 이목구비가 선명하고 화사하게 형상화 하여 마치 인형을 보듯이 분장을 하며, 현대무용 분장은 다양하고 실험적인 분장연출로 형상화 할 수 있도록 하곤 한다.

영상 분장은 무대 분장과 달리 무대 앞의 관객을 상대로 하는 분장이 아니라 렌즈를 통한 영상의 모습이 TV앞에 앉은 시청자로 가까이 전해지는 것으로 보다 사실적이고 세밀한 분장이 요구 된다. 요즘 들어서 TV수상기의 발달로 고화질·대형화의 추세로 흐르고 있으며 안방에서 영화의 감동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홈시어터²⁸⁾(home theater)의 보급으로 인하여 영상물의 잘못된 점까지 세세히 꼬집어 내는 시청자의 의식 수준을 간과해서는 안 되므로 보다 정확하고 섬세한 분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분장(扮裝)은 인물들의 아름다움만을 나타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극의 작품 속에 설정된 각 인물들의 환경적 요인과 시대적 배경들을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즉 노인이나 실업자·전과자·흑인·백인 또는 상처·바보·괴기·유령·도사 등의 성격적 묘사를 배역인물에 최대한 가깝게 이질감이 유발되지 않도록 각 인물의 개성을 살려 독자적인 개성을 더욱 분명히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인물로 변모시켜 주어야 한다. 그리고 촬영이 지속되는 동안에도 최적의 분장 상태가 유지될

28) 극장식의 오디오 및 비디오 설비가 갖추어진 가정용 극장 대형 모니터에다 입체 음향을 지원하는 앰프와 5.1채널 스피커 DVD VCR 를 연결하여 텔레비전과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극장에서 느낄 수 있는 감동을 실내에서 감상할 수 있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영상 분장은 영상 매체 및 성격에 따라 다시 ‘TV방송 분장’과 ‘영화 분장’ 등으로 나뉘는데 TV방송 분장은 TV 화면이 영화의 화면 확대 현상에 비해 실제보다 축소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절제된 색상의 조화, 섬세하고 간결한 테크닉을 요구하며 반면에 영화 분장은 대상이 대형 스크린에 이므로 실제보다 확대되는 현상이 있어 굉장히 세밀하고 사실적인 정확한 분장법을 요구한다.

분장은 그 성격에 따라 ‘성격 분장’·‘일반 분장’·‘특수 분장’으로 나눌 수 있으며 성격분장은 연기자가 맡은 배역의 성격을 관객 즉 시청자에게 구체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분장으로 드라마나 코미디의 연기자들에게 주로 행해지며, 주로 이때 배역의 성격은 극본에서 얻어지는데, 극본에 표현된 대화나 설명문에 내재된 이들의 성격과 시대적 배경·환경·연령·외양 특징·작품 속 다른 인물과의 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해 연기자의 외양에 따라 용모의 변화 폭을 결정하게 된다. 배역의 성격을 정하는 것은 연기에 필요한 만큼 분장에도 꼭 필요하다²⁹⁾.

일반 분장은 출연자의 성격이나 개성보다는 용모를 아름답게 표현하고 피부색을 최상으로 나타내고 조명의 강렬한 광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분장으로서 아나운서·MC·뉴스 캐스터·TV리포터·TV 대담프로그램 출연자 등에게 적용된다. 일반 분장은 다시 ‘기본 분장’, ‘뷰티 분장’, ‘스트레이트 분장’, ‘기본 패션분장’, ‘신부 화장’, 사진·포스터·광고 등을 위한 ‘기본 광고 분장’ 등으로도 나뉜다. 특수 분장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 역할의 연기자가 설정된 인물에 가깝게 다가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사실적이면서도 비사실적인 표현수단 이라고 할 수 있다. 극본에 제시된 등장인물의 성격 자체가 비사실적으로 표현될 경우 사실적인 정확정보다는 과장·단순화·상징화·의미화된 선

29) 박승배(1991), “한국의 무대 공연에 나타난 분장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pp.12~23.

과 색채·형태·생물등과 연기에 사용되는 가면도 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특수분장은 다시 ‘시대분장’, ‘성격 분장’, 데드마스크(Deathmask)를 이용한 ‘접착 분장’, ‘추상 분장’, ‘연령 분장’,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는 추상적인 인물의 ‘실제화 분장’, ‘연령 분장’, 등으로 나뉘진다. 분장은 포괄적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즉, 모자의 종류·가발을 포함한 헤어스타일·안면 분장·의상·장신구·신발류·소도구 등을 포함하지만, 현대의 분장은 헤어스타일과 안면 분장만을 의미한다.³⁰⁾ 그리하여 방송분장은 얼굴과 머리 부분이 분장의 핵심부위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을 중심으로 의상, 장신구, 의상소품, 신발과 무대의 배경 세트·소도구, 의상, 장신구 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분장사가 분장을 잘하는 것이 붓과 같은 재료사용 기법에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 보다 나은 분장의 효과를 살리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와의 의견소통과 조합으로 보다 분장이 잘 돋보일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도록 현장에서의 의사소통도 중요한 요인이다. 분장과 어울리는 의상, 분장의 표현이 잘 나타낼 수 있는 조명 그리고 적합한 분장을 할 수 있도록 연기자와 연출자와의 대화 등은 ‘안면 분장’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30) 김봉천, 전계논문, pp,13~15.

제 2절. TV 주간시트콤 “안녕 프란체스카”를 통한 분장 분석.

1. 작품 기획의도

최근 몇 년 동안 무수한 가족시트콤이 등장하였다. 하지만 소재와 설정의 한계를 드러내고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이에 흡혈귀 가족이라는 이색적이고 독특한 설정을 통해 기존 가족시트콤과는 차별화 된 웃음을 만들어내면서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가족의 의미를 날카로운 풍자로 재해석하여 독특한 시트콤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안녕 프란체스카”의 기획의도이다.

2. 작품 내용과 등장인물 소개

1) 작품내용

2005년 루마니아에서 멸족위기에 몰린 뱀파이어들은 ‘피의 제국’의 영광이 재현되는 그 날까지 조용히 인간처럼 숨어 지내기 위해 앙드레 대교주가 정해준 안전가옥을 찾아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진다. 멸족위기로 도망을 다니던 뱀파이어들은 배를 잘못 타 한국에 도착한 후 실수로 소심하고 불운한 인간, 두일을 물게 되면서 극의 시나리오가 전개된다.

프란체스카가 왜 자신을 물었는지도 모른 채 변종 뱀파이어가 돼버린 두일은 언젠가 대교주가 오면 다시 인간으로 만들어준다는 뱀파이어들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할 수 없이 그들과 기묘한 동거를 시작하게

되며 마침내 한 주택가에 잠입한 뱀파이어들은 어설픈 한 가족으로 위장하여 위태로운 서울생활을 시작한다.

가족이 아니면서도 가족처럼 꾸미고 인간이 아니면서도 인간인 척 살아가는 뱀파이어들이 만들어 가는 극의 시나리오에는 흡혈귀보다 더 흡혈귀처럼 살아가는 인간들의 세태를 풍자하는 보고서형식의 프로그램이다.

2) 등장인물 소개

① 프란체스카 (심혜진 분)

과거는 고사하고 현재의 감정 상태를 전혀 알 수 없는 정통귀족가문 출신의 냉소적인 뱀파이어 프란체스카, 고귀한 취향의 프란체스카가 두일을 몰은 이유를 가족들은 아무도 알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두일과 부부행세를 하게 되지만 자신을 증오하는 두일의 말은 한 귀로 흘리며 섬뜩한 장난을 일삼곤 한다. 검은 긴 생머리를 늘어뜨리고 웃음기 전혀 없는 차가운 표정의 프란체스카이지만 미워할 수 없는 엉뚱함과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성격의 소유자이다.

② 두일 (이두일 분)

이제껏 그럴듯한 연애를 못해본 마흔의 노총각이며 운전면허도 20번 만에 겨우 합격한 불운의 남자이다. 짝사랑하던 여자에게 거절당하던 날 프란체스카(심혜진 분)에게 몰려 뱀파이어가 된 박복한 사나이로 설정되어 이야기는 전개된다. 구원의 날까지 구제불능의 뱀파이어들과 버티기만 하면 다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믿음만으로 그들과의 동거를 시작하게 되지만 뱀파이어들의 엽기적이면서 황당한 사건의 뒤처리로 항상 가족 중에서 인간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지만 근심과 걱정이 끊이질 않는다.

소심하지만 마음만은 숨털처럼 포근한 성격의 소유자이므로 서서히 가족들에게 인간의 정을 느끼게 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③ 엘리자베스 (정려원 분)

귀엽고도 섹시한 외모와 순수하면서도 도발적인 감성을 지닌 뱀파이어계의 얼짱³¹⁾이며, 인간의 패션과 문화에 관심이 많고 감각까지 뛰어난 매력적인 뱀파이어이다. 구원의 날까지 정통 엘리트 흡혈귀가 될 완벽한 신랑감을 사냥해야 하는 자신만의 사명감에 불타 많은 인간 남자들과 데이트를 해보지만 그녀의 눈에는 걸모습이 번지르르한 인간들이 어딘가 모르게, 이상하기만한 남자들만 만나게 되어 끊임없이 남성을 추구하게 된다.

④ 쿤 (이 쿤 분)

잘생긴 외모와는 달리 무척이나 무식하고 단순하리만큼 순수한 영혼의 소유자이다. 뱀파이어 왕족 최악의 기근 때 목숨을 잃을 뻔하다 닭피를 수유 받아 살아났다. 그러나 그 이후로 지능저하가 되어버린 아이로 자랐으며 순수한 외모에 계속적으로 접해지는 인간 여자들을 거침없이 교제를 하지만 만족스러운 연애를 하기에는 늘 역부족인 지능 탓에 엉뚱한 짓을 일삼는 인물이다.

⑤ 소피아 (박슬기 분)

어린 외모와 낭랑한 목소리, 걸모습은 깜찍하고 발랄한 중3 소녀이지만 실제로는 수천 년을 지내온 뱀파이어계의 대왕고모님이다.

대교주님이 구원해 주실 날을 학수고대하며 대책 없는 엽기 가족들을 통제하느라 늘 노심초사한다. 수천 년간 뱀파이어와 인간 사이에 있

31) 얼굴의 얼과 최고라는 의미를 가진 신조어인 짱의 합성어로 얼짱은 현재 신세대(80년대 이후 출생)의 유행어로 얼굴이 최고로 잘생긴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였기에 눈치는 빠르다. 하지만 어딘 가 알 수 없는 엽기취향의 어른이 기도 하다.

3. 작품의 특징과 시청 포인트

1) 작품의 특징

연출자 ‘노도철’은 외모지상주의를 풍자했던 MBC의 “두근두근 체인지”(2004년 5월 16일~2004년 8월 6일)에서는 ‘물질만능주의’를 풍자 하였다. 극빈자의 아이가 굶어죽는 우울한 보도가 줄을 잇는 등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된 요즘, 대중들은 가족들의 훈훈한 가족애 이야기에 큰 공감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대중의 요구에 힘입어 “안녕 프란체스카”를 대중들에게 선보이게 되었다.

쥐꼬리만큼 적은 두일의 월급만으로 서울생활을 시작하는 이 뱀파이어 가족은 살아남기 위해 그들대로 즐겁게 가난을 이겨 나가며 오직 ‘돈’ 을 위해 살아가는 인간들보다 더 끈끈한 가족애를 경험하게 된다.

연출자의 연출 의도는 다음과 같다.

① 현대에 과거의 상상속의 존재인 뱀파이어를 왜 등장시키려 하는가?

인간의 모습과 가장 흡사한 뱀파이어는 어떤 다른 몬스터(Monster)들보다 자유롭게 인간의 사랑을 갈구하는 몬스터이다. 이들을 통해 기존의 현실 주인공이 해보지 못한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행동이 가능하며 경계를 허무는 기상천외한 웃음을 기대할 수 있다.

② 생소한 뱀파이어가족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시선을 끌 수 있을까?

막내와 어른이 뒤바뀌고 남편과 부인이 원수지간인 독특하고 황당한 가족설정은 기존 시트콤과는 달리 세대 간의 갈등과 바쁜 일상으로 점점 해체되어가고 있는 요즘 가족들의 모습을 날카롭게 풍자하기 위한 장치라 할 수 있다. 가족이 아닌 그들이 좌충우돌 가족애를 찾는 과정을 통해 기발하고 순발력 있는 웃음을 선호하는 젊은 세대들은 물론 전 연령층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2) 시청 포인트와 분장의 방향

“안녕 프란체스카”의 구성작가인 남지연에 따르면 시청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프란체스카(심혜진 분)에게 물려 뱀파이어 가족에 합류하게 된 두일은 왜 자신이 물렸는지 이유도 모른 채 혜진을 증오했지만 화를 내는 날엔 혜진에게 더 무섭게 당하기만 한다. 혜진이 두일을 왜 물었는지의 수수께끼는 과연 풀릴 것인지, 늘 서로 무시하고 치고 박고 싸우는 이들의 전쟁은 결국 어떻게 끝이 날 것인지 지켜보는 것이 극을 보는 관건이 된다.

둘째, 극중 엘리자베스(정려원 분)는 타고난 패션 감각의 소유자로 매회, 매씬 마다 가장 트렌드하고 감각 있는 의상과 소품을 선보일 예정으로 패션에 관심이 많은 20, 30대 여성들의 눈을 즐겁게 할 것이다. 또한 엘리자베스는 완벽한 인간 남자를 만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 단회, 또는 3~4주마다 남자배우가 카메오(Cameo)로 등장하거나 새로운 남자 신인들이 기용될 예정으로 다양한 연애방식들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³²⁾

32) 남지연 작가(안녕프란체스카의 구성작가)와의 인터뷰. 2006. 03.

“안녕 프란체스카”의 작품 특성상 대표적인 웃음은 ‘의외성’에서 나온다.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가족의 모습에서는 가장 나이가 어린 소녀처럼 보이는 왕고모가 뱀파이어 세계에선 교주의 부인으로 서열이 두 번째이다. 외모적으로 보아선 가장 나이가 어린 소녀에게 성인의 모습을 한 뱀파이어 들이 고개를 조아리며 예의를 갖추는 것, 이러한 의외성이 웃음 유발을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또 다른 코드는 ‘엽기’이다. 두일은 뱀파이어와의 동거생활에서 프란체스카의 요리에 감탄을 감추지 못한다. 하지만 그렇게 맛있는 닭백숙이 알고 보니 비둘기 요리이었음을 알고 눈물을 머금고 한강을 뛰어 다니는 장면은 참으로 의외성과 엽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다.

시트콤은 멜로드라마 연재물과는 다른 반복형식에 의지하며 상황은 변화가 허용되지 않고 각각의 에피소드 내에서 불안정화와 재안정화의 반복적인 순환성에 훨씬 더 의존하고 있다. 변화가 다양할지라도 끝은 처음과 같은 상황으로 원상복구 된다. 그러나 “안녕 프란체스카”의 이야기 구조는 이러한 전통적인 시트콤 내러티브(Narrative)와는 차이가 있다. 시트콤의 전통적인 내러티브가 이미 완성된 구조에서 시작하여 구조를 변화시키지 않고 끝이 난다는 것이면 “안녕 프란체스카”는 극의 시작부터 완성된 구조를 표방하지 않는다.

등장인물은 가족구성원의 완성된 모습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닌 뱀파이어인 프란체스카 일당과 두일이 가족으로 살 수 밖에 없는 불안정한 가족 구조로 출발한다. 인간이었던 두일이 프란체스카에게 물리면서 뱀파이어가 되고 그들과 가족이 되면서 이야기는 시작되며 그리고 그 가족들은 뱀파이어 일당을 구해줄 ‘앙드레’라는 인물이 언젠가는 등장 할 거라는 암시를 준다. 이는 이미 완성된 등장인물과 이야기구조로 시작하는 시트콤의 전통과는 차이가 있다. 매회 에피소드에서 기승전결의 구조로 끝을 맺어왔던 시트콤의 서사구조와는 달리 다음회의 암시와 궁금증 유발로 만드는 미니시리즈나 연속드라마의 방법을 차용하고 있

는 것이다.

“안녕 프란체스카”에서의 분장의 방향은, 모든 출연자의 외모는 냉소적인 모습을 보이면서도 인간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청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비록 뱀파이어의 역할이나 시청자들에게 인간의 내면성을 느낄 수 있도록 격리감이 느껴질 수 있는 기존의 뱀파이어 분장, 즉 핏기 없는 하얀 얼굴과 검붉은 색의 입술과 같은 분장의 기법은 특정한 상황에서만 연출하도록 하였고 일상생활에서는 인간의 삶과 똑같다고 느낄 수 있도록 기본적인 분장의 기법으로 설정을 하여 인간의 모습과 흡사한 모습으로 분장의 방향을 이끌어 나아갔다.

“안녕 프란체스카”는 과거에 행해져왔던 과장된 분장의 방법을 사용한 기존의 시트콤과는 다른, 극히 사실적인 분장을 실시하면서도 시트콤의 특성인 해학적인 면을 같이 부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분장을 이끌어 나아갔다. 그 이유는 “안녕 프란체스카”는 미니 시리즈 형태를 갖춘 드라마 형식의 시트콤이며 극의 내용면에서는 인간의 내면보다 더욱더 따뜻한 정을 전달하며 진솔한 이야기구성에 초점을 두기위해서, 그리고 시청자들의 슬픈 감성을 자극하는 극의 시나리오로 인해 과장된 분장을 회피하며 상황에 따라 해학적으로 보여야 될 부분에만 과장된 분장의 표현을 실시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 나아갔다.

4. 등장인물들의 성격표현의 연구

작품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은 작품에 들어가기 전 연출자와 스탭간의 회의를 통하여 각 분야별의 창의적 방법이나 연출자의 의도를 심도 있게 파악하게 된다. 그 중에서 분장 팀과의 협의에선 다음과 같다. 극의 인물이 뱀파이어지만, 인간들과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의 해프닝을 진솔하고 재미있게 나타내며 상황설정을 엽기적으로 묘사를 하여 웃음을 유발하는 것이 연출자의 의도 이므로 일반인들과 극히 차별되지 않는 분장으로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 뱀파이어 무리들은 변종 뱀파이어의 일종으로써 낮에도 햇빛을 볼 수 있으며 흔히 말하는 뱀파이어 퇴치용 물건, 즉 마늘, 성수, 찬송가, 십자가 등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변종 뱀파이어로 그려지고 있다. 또한 한 회로 이루어지던 기존의 시트콤과는 달리 미니시리즈의 연속성을 갖고 있는 시트콤이므로 한회가 끝나고 다음회로 이어질 때 분장의 연결부분에도 중점을 두어야 하는 시트콤이다.

1) 프란체스카(심혜진 분)

프란체스카 역을 맡은 연기자 ‘심혜진’은 오랜 영화작업만을 주로 한 여배우이다. 오랜 시간의 공백 기간에서 브라운관에 복귀를 하여 연기자의 의욕과 설정자체가 튼튼히 계획되어있는 연기자 이었다.

촬영에 들어가기에 전 배우 ‘심혜진’은 분장 팀에게 분장과 헤어연출에 관해 제언을 제시했다. 그것은 외국영화에서의 여배우 모습을 인용하는 것이었는데, 모토(Motto)가 된 것이 아담스 패밀리(The Addams Family, 1991)이다. 극중에 나오는 부인 모티시아(Morticia: 안젤리카 휴스턴 분) 머리모양의 외향적 모습을 인용하는 것이었다.

아주 긴 검정 생머리를 중간 가르마로 타서 양쪽 옆머리를 반을 앞

으로 반은 뒤로 넘김으로서 차갑고 무서운 이미지를 부여함과 동시에 키가 큰 연기자에게 신비스러움을 부여 하도록 하였다. 처음 시도 땀 연기자의 자연 상태의 머리에 인조머리를 붙이는 작업을 시도하였으나 그 결과 작업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었으며 머리가 길어진 효과 외에는 신비스러움이나 차갑고 무서운 이미지를 찾을 수 가 없었다. 그리하여 술이 많으며 머리길이가 아주 긴 가발을 이용해 여자 연기자의 170cm에 가까운 큰 키와 긴 머리와의 조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고 머리카락의 색깔도 갈색보다는 진한 검정색으로 염색을 하여 좀 더 강인하고 차가워 보이도록 설정을 완료 하였다.

분장은 평상시에는 기본적인 일반 분장을 행하였다. 그리 창백하지도 않으며 피부 톤(Tone)과 흡사한 제품, 죠블라스코 네츄럴 베이지 2번 (Joe Blasco Cosmetics Natural Beige NO. 2)을 사용하여 피부색보다 한 단계 밝은 안면 분장을 실시하였으며 눈썹은 연기자의 본형(本形)의 눈썹모양에서 과장되지 않게 흐린 부분만 칠하는 형식으로 실시하였으며 눈두덩이 부분의 아이섀도(Eye Shadow)는 검은색의 의상과 매치가 잘될 수 있도록 보라색과 핑크색의 혼합으로 기본 분장을 실시 하였다. 단 볼터치에 관해선 냉담하고 차가운 인상부여를 위하여 실시 하지 않았고 입술분장도 평상시엔 립 글로즈(Lip Gloss)만 발라 색깔을 크게 강조하지 않았다. 가끔 극 상황에서 무서운 장면을 연출하거나 심하게 화가 나있어 공격적인 분위기 설정 시에는 다른 부분은 그대로 둔 채 입술색깔만을 짙은 보라색으로 실시하였는데 그 이유는 색에 있어서 보라색은 신비감을 나타내는 색이며, 어두워진 입술 색은 극중의 심리변화를 나타내어 연기자의 표정연기에 도움이 수단으로 입술분장을 실시하였다.



그림 6. 아담스 패밀리



그림 7. 프란체스카 분장

(출처 ;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



그림 8. 안녕프란체스카 등장인물

출처(<http://www.imbc.com/broad/tv/ent/franceska03/>)

2) 두일(이두일 분)

현대인의 대표적 인물로 작은 박봉에 삶을 무료하게 살아가는 노총각의 성격 인물이다. 일반 평범한 샐러리맨으로서 특이한 분장적인 요소는 없다. 성격자체가 우둔하며 낙천적인 성격을 가진 소유자로 항상 프란체스카 때문에 곤혹을 치르기도 하지만 부드럽고 인자하다. 가족 없이 혼자 살아온 지난세월을 변종 뱀파이어들과 생활함으로 조금씩 잃어버린 정을 되찾아가고, 가족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가장의 역할을 하며, 때론 자상한 남편처럼, 때론 가족을 보호할 줄 아는 자상한 가장으로 점차 변해가는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성품의 소유자로 우직하게 삶을 살아가는 인자한 성품의 소유자 이다.

배우의 원래 피부색이 다른 이들과 달리 좀 어두운 편이다. 가족과의 단체촬영 장면이 많은 관계로 인해 전체적인 배우들의 피부색 조절 관리로 본인의 피부색보다는 한 단계 밝게 표현하여 전체적인 톤 맞추에 중점을 두었다. 사용 제품으로는 조블라스코사의 내츄럴 베이지 3번 (Joe Blasco Cosmetics Natural Beige NO. 3)으로 파운데이션 (Foundation)을 펴 발랐다.

연기자의 피부타입이 유분이 많고 파운데이션을 빨리 흡수하는 지성 피부이어서 처음 분장을 실시할 땐 다른 사람과 달리 조금 두텁게 도포하였으나 하루 종일 촬영을 강행할 시에는 오후에 다시 한 번 분장을 실시하여 피부의 단점보안을 하는 데 주력하였다. 다른 사람은 촬영 전 한 번의 분장으로 촬영 끝날시 까지 수정만 하는 거와는 달리 두일의 분장은 촬영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하루에 3회를 실시할 정도로 피부의 흡착력이나 유분이 많은 배우이어서 분장 상태를 유지하는데 조금의 어려움이 뒤따르곤 하였다.

머리모양은 본인 본형머리 형태로 수수하게 내려오게 하여 모발제품과 같은 고풍제를 쓰지 않은 자연스러운 머리모양으로 연출을 하였다

3) 엘리자베스(정려원 분)

뱀파이어 가족들 중에서 제일 패션에 관심이 많은 배역으로 잣은 의상설정과 헤어스타일이 변경된다. 극중 캐릭터는 귀여우면서도 섹시(Sexy)미를 강조하며 여러 남자들과의 만남으로 좋은 유전자를 가진 남자를 몰아서 흡혈귀로 만들어 ‘피의 제국’ 재건에 희생양으로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여러 남자를 만나게 된다.

초기 촬영에는 긴 생머리로 설정을 하여 촬영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극중 성격이 프란체스카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모습으로 인해 갈색으로 염색을 하였고 연기자의 연기설정이 시청자들의 호응이 크게 부각되지 않는 이유로 극중 성격을 귀여움으로 설정이 바뀌어져 매회 촬영마다 머리를 묶어서 올리거나 모자나 헤어밴드를 착용하여 변화를 꾀하여 주었다. 일반적인 기본 분장과 헤어 연출에 있어서는 외부 미용실과 연기자의 기획사간 계약으로 인하여 연구자가 직접 행하지는 않았으나 분장 연출의 기준과 의도를 충분히 지시, 전달하여 계약된 외부 미용실에서 기본분장을 행하여 오는 것으로 하며 현장에서는 수정과 보완을 중심으로 한 기본 분장의 실시와 특별한 장면에서의 설정변화에 있어서는 현장에서 연출자와 협의를 통하여 촬영장면의 설정에 맞는 성격 분장을 실시하였다.



그림 9 . 엘리자베스 분장연출1



그림 10. 엘리자베스 분장연출2

4) 권(이 권 분)

뱀파이어 가족 중 제일 지능이 떨어진 청년으로 그려지는 등장인물이다. 하는 일이 아주 원초적이며 상황대처능력이 초등학교보다 더 지능이 낮으며 학습능력이 많이 뒤떨어지는 성격의 소유자이다. 려원과 같은 나이로 이성보다는 동성애를 은근히 갈망하는 성격으로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동성애자 성격적인 인물이다.

어릴 때 인간의 피가 전염병이 돌아 수유를 할 수 없게 되자 닭 피를 수여받아 자라나며 일명 ‘닭대가리’라 놀림을 받아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겐 굉장한 호감을 갖고 다가간다. 특히 안성 덕에겐 이성을 느끼는 것 보다 모성애(母性愛)같은 사랑으로 다가가는데 상대의 안성 덕은 권이 자신에게 사랑을 느끼며 다가오는 줄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권의 분장은 처음 등장할 때 신세대가 좋아하는 외형으로 연출을 하였다. 요즘 트렌드(Trend)라 할 수 있는 수염을 어느 정도 진하지 않게 설정하였으며, 머리 형태는 샤키 커트(Shaggy cut)³³⁾ 스타일로 젊은 시청자들의 취향으로 맞추다. 안면 분장에 쓰인 파운데이션(Foundation)은 연기자의 피부색이 약간 어두운 편이라 전체적인 피부색 조절을 위해 한 단계 밝은 색을 아주 얇게 펴 발라 주었다. 쓰인 제품은 조블라스코 네추럴 베이지 3번(Joe Blasco Cosmetics Natural Beige NO. 3)이었으며 연기자의 나이가 어리고 피부상태가 좋아 최대한 가볍게 펴 발라 연기자 본인 피부질감을 나타내는데 중점을 두었다. 나머지 눈썹과 아이라인 정도는 회색 눈썹연필로 가볍게 보완을 하는 정도였다.

33) 출처(네이버(Naver) 지식검색): 샤키 커트(shaggy cut):일본에서 개발된 커트 방법이다. 샤키는 새기(shaggy)의 일본식 발음으로 깃털처럼 가볍다는 뜻이다. 얼굴이 넓고 골격이 강하며 머리카락이 굵은 동양인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이다.

이 연기자인 경우 기본 분장은 피부의 결점을 감추기 위한 분장이 아니었으며 조명의 반사와 다른 등장인물들과의 피부색 조화의 안면 분장으로 기본분장이 이루어졌다.

5) 소피아(박슬기 분)

외모는 중학생 같이 제일 어리고 작은 체구의 외형을 갖고 있다. 하지만 뱀파이어 계에선 2000살이 넘는 왕고모 이다. 루마니아에서 뱀파이어 사냥꾼들에게 쫓겨 탈출의 목적지가 일본이었으나 한국행 배로 잘못 옮겨 타게 되어 뱀파이어 무리들을 이끌고 서울에서 낯선 생활을 하게 된다. 철없고 사고뭉치인 일행들을 통솔하는 역할로 일행들 앞에선 위엄한 왕고모의 역할을 하지만 인간들과의 삶에선 중학교 3학년 여중생으로 위장 하여 자신의 신분을 감추며, 나타날지 모르는 뱀파이어 헌터들로부터 가족들을 보호하려고 애쓰는 인물이다.

기본 분장은 어리게 보이도록 밝은 파운데이션을 사용하였다. 다른 연기자들과 피부색이 밝은 편인 연기자이어서 전체적인 연기자의 피부색과 맞추기 위해 피부색 보다 한 단계 어두운 파운데이션을 썼다. 이 연기자에게 다른 연기자에게 사용하였던 조블라스코(Joe Blasco) 제품이 연기자의 피부색과 맞지 않아서 미쓰요시사(주식회사 三美) 제품의 Y-2번 제품을 사용을 하여 가볍게 펴서 도포하여 주었으며 눈썹분장은 연기자의 눈썹이 비대칭 적이어서 회색과 갈색 눈썹 펜슬을 혼합하여 눈썹 모양을 대칭적으로 맞추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치크(Cheek) 분장은 뱀파이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행하지 않았으며 입술은 연한 립 글로즈(Lip Gloss)로 건조해 보이는 것을 건강하고 어린 나이로 보일 수 있도록 중점을 두었다.

머리 모양은 중학생답게 보이기 위해 앞머리를 일자모양으로 자르도록 하였으며 옆머리는 늘어트리며 뒷머리는 단정히 묶어서 학생답고

어리게 보이도록 설정을 하였다.

6) 앙드레 교주(신해철 분)

뱀파이어 계의 ‘대교주’이다. 루마니아에서 뱀파이어 사냥꾼들에게 쫓기는 과정에 프란체스카 일행과 동행을 하지 못하고 뒤늦게 일행들과 합류를 하였고, ‘대교주’라는 명분과는 달리 엉뚱하고 위엄이 떨어지는 행동을 많이하는 성격의 소유자이다.

뱀파이어들만이 각기 가지고 있는 능력들 중 앙드레 대교주는 앞날을 예언할 수 있는神通한 예지력을 갖고 있는 소유자이지만 그 능력은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기 3초전에만 나타나 결론적으로 쓸모없는 예지력으로 일행들에게 평가를 받고 있다. 도박과 여색을 좋아하는 버릇으로 프란체스카 일행에게 많은 고통을 주기도 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이 배역인물을 ‘신해철’로 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신해철’은 엉뚱한 일탈적인 행동을 실제로 주로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음악적인 마니아(Mania)들은 그를 교주라고 칭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기자가 아닌 가수를, 연기력이 인정되지 않는 인물을 배역에 투입하는 것은 큰 모험이었으나 ‘신해철’의 삶에서 보여주는 실제의 행동들이 연기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이 배역에는 안성맞춤의 적합한 연기자로 평판을 받았다.

분장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신해철’이 실제공연을 할 때 가면과 긴 머리의 가발을 착용하며, 망토를 걸치는 등 교주적인 이미지를 음악팬들에게 확실시 심어놓은 상태로 연출자는 그러한 이미지를 브라운관에 연기자로서 옮겨놓기를 원하였다. 공연에서 사용되었던 가발은 연한 갈색머리에 흰색의 머리카락이 부분 들어가 있는 모양이었다. 그리하여 전체적인 프란체스카 일행들과 동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길이가

어깨까지 내려올 정도의 진한 검정색 가발을 제작하였으며 그곳에다 흰색 머리카락을 포인트(Point)로 앞부분과 정수리에서 옆머리, 뒷머리 등으로 부분적으로 심어 가발모양을 설정하였다.

기본 분장의 실행은 '대교주'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 인상을 강하게 보이도록 하였다. 기본적인 파운데이션(Foundation)은 내츄럴 베이지 3호(Joe Blasco Cosmetics Natural Beige NO. 3)를 사용하여 전체적인 배우들과 피부색을 맞추었으며 눈썹은 강하게 보이기 위해 굵고 진하게 약 15도 위로 올라가게 눈 꼬리 윗선까지 올려 그렸으며 눈 분장에 있어서도 아이라인을 검정색 연필로 다른 이들 보다는 강하게 그려 그라데이션(Gradation)을 시켜주었다. 위엄적인 개성과 다른 연기자들과의 차별성을 위해 턱수염과 콧수염을 기르도록 설정하였으며 자란 상태에서 술이 없는 곳은 검정색 마스카라(Mascara)와 검정색 파운데이션을 사용하여 술이 많아보이도록 연출하였다.



그림 6. 그룹 '넥스트' 공연당시 분장의 모습 (출처 : <http://www.imbc.com/broad/tv/ent/franceska/people/index6,0,0.html>)



그림 7. '앙드레' 분장으로 연출된 모습

5. 시트콤 분장변화의 연구.

과거의 시트콤 분장은 코미디 분장과 비슷한 형태인 과장과 비사실적인 분장을 많이 실시 해왔었다. 시트콤과 코미디의 성격이 웃음을 주목적으로 하는 극의 전개방식으로 인해 코미디에서 나온 분장이 시트콤에 등장하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다. 분장의 방향 또한 웃음을 주기위한 목적으로 과장된 모습을 많이 보여줘 왔으며 비사실적인 모습이 오히려 웃음의 자극과 같은 요소로 다가가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 하였다.

코미디 분장은 코미디 연기자가 연기를 하는데 도움을 주 수 있는 연기의 보조 수단이기 때문에 직업, 성격, 개성을 살려 재밌고 효과적인 분장을 시도해 나가야 한다. 한편 코미디 분장은 일반 드라마의 분장과는 다르게 섬세하지 않아도 되며 역사적 고증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연기자의 개성과 특징적인 면을 과장시켜 시청자나 관객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게끔 더욱 큰 분장효과를 나타내 주어야 한다. 코미디언들이 다양한 소재의 아이템(Item)으로 순간적인 제스처(Gesture)와 연기를 잘 하듯이 분장인 들도 코미디분장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창의력과 순발력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³⁴⁾ 분장사 ‘강대영’의 의하면 과거 코미디 분장은 시청자의 웃음을 주목적으로 하기위해 과장되고 비사실적인 표현을 부과해 연기자의 과장된 연기와 맞물려 ‘폭소(爆笑)’를 자아내는데 주력하였다.³⁵⁾ 라고 말한다. 이렇듯 시트콤 분장의 역사가 코미디에서 흘러와 표현방식도 그 주류를 따라 왔으며 과장된 연기에 과장된 분장이 합해져 코믹(Comic)연기의 도움이 되어져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다 효과적으로 전과 되었다.

34) 강대영의 앞의 책, p.86.

35) 강대영과의 인터뷰(2006. 12. 01)



그림 13. KBS 유머 일번지 申(1992), ‘영구야 영구야’
출처: 강대영의 소장사진



그림 14. KBS 유머 일번지(1990)
(출처 : 강대영의 소장사진)



그림 15 KBS 봉숭아 학당(1991년)
(출처 : 강대영의 소장사진)

초기의 시트콤은 웃고 즐기기 위주의 코믹물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리하여 코미디 성격의 강한 분장들이 주로 사용되어 왔으며 현재 까지 코미디에서 사용되기도 한다. 앞의 그림 8, 9, 10 은 분장의 표현방식이 드라마 분장방식보다 색의 농도를 사용함에 있어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 비정상적이고 비대칭적인 얼굴구조를 만들기 위해 강한 음영을 이용하여 연기자의 얼굴을 희화화 하는 것은 얼굴모습만 보아도 시청자들에게 강한 웃음을 만들어내 준다. 그리하여 초기 시트콤의 상처분장이나 성격분장은 코미디 분장방법을 많이 실시하였다.

현대 시트콤의 성격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짧은 콩트(Conte) 위주의 형식이 드라마 성격의 이야기 구조인 장편화를 가져왔고, 웃고 즐기기 위주에서 감동과 계몽 등의 전달방식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시트콤의 종류도 다양해져 요즘에 들어서는 일일시트콤도 드라마형식을 많이 택하고 있고 미니 시리즈 형식의 주간 시트콤도 있다.

본 연구자가 연구대상으로 삼은 “안녕 프란체스카”는 판타지 시트콤이다. 하지만 기존의 시트콤과는 다른 미니 시리즈의 드라마 형식으로 극의 흐름이 펼쳐지고 있다.

성격분장의 방향은 드라마 형식에 맞추어 사실적인 표현방법의 분장을 실시하였다. 이 극이 시트콤에서 웃음을 강조하는 부분도 있지만 감동(感動)과 점차 사라져만 가는 인간의 정(精)을 시청자들에게 일깨워주려는 연출 의도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였기 때문이다. 시청자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전달시키는데 있어서 극의 시나리오와 연기자들의 연기력이 최우선이며, 그 연기자들이 배역설정에 충분히 빠져들어 감정을 쉽게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분장의 목적이자 의의이기도 하다. 과거의 시트콤들은 과장스러운 연기와 희극적인 극의 시나리오로 인해 분장의 요소도 코미디 방향으로 성격을 맞추어져 왔지만 “안녕 프란체스카” 시즌1, 2는 시나리오가 드라마 형식으로 극의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시즌3은 옴니버스(Omnibus)³⁶형식으로 극의 구성이 이루어 졌다. 그리하여 이 작품의 분장 방향을 드라마형식으로 극의 사실적인 의미전달에 중점을 두었으며 그와 함께 시트콤의 특징으로 인한 코미디의 분장적인 측면을 병행한 것이다.

이 작품을 실무로 담당하면서 시나리오와 연출의도를 기준으로 하여 매회 시나리오에 나타나는 분장의 성격변화들을 분장담당 책임자로 연기자들에게 분장의 중요성을 대화로 숙지시키며, 시나리오에 있어서 분장이 과장 되어야할 부분은 현장에서 연기자의 즉흥적 연기를 고려하여 분장의 강도를 상황 설정에 적합하게 성격분장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이 작품은 매회 마다 엽기적인 사고방식이나, 갑작스러운 사건·사고 등의 요소로 극의 재미를 더해주고 있다. 사건이나 사고로 인하여 얼굴에 상처를 입는다든지 상상에서만 나오는 인물로 분장을 하여 연기를 한다든지, 길거리로 나왔어 거지가 된다든지 등의 황당하고 엽기적인 모습들이 많이 등장하였다.

36) 출처 :Daum 국어사전 - 영화·연극 등의 한 형식.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몇 개의 독립된 짧은 이야기를 늘어놓아 한 편의 작품으로 만든 것

1) 상황설정에 따른 분장

“안녕 프란체스카”의 분장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 주로 사용하였던 것이 인물들 간의 갈등이 고조되었을 때 나타나는 분쟁의 결과물인 얼굴에 상처분장을 실시하는 것을 자주 사용되었다. 전쟁 드라마나 액션물의 드라마에서도 이러한 상처분장이 많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시트콤에서는 상처분장이 인물들 갈등의 대처사항을 보여주다가 바로 다음 장면에서 멍이나 상처를 붙잡고 코믹적인 표정을 지으며 있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어 웃음유발을 유도하고 있다.

상처가 생기는 원인은 서로간의 갈등으로 인해 싸움이 일어났거나 어떠한 물건에 부딪혔을 때 또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사고를 당했을 때 주로 생기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극에서 발생될 때 상처분장을 실시하게 되며, 분장을 하기 전 시나리오의 상황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물론이며 촬영 전 리허설(Rehearsal)때 연기자의 움직이는 동선까지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분장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을 수 있는 곳에 시행할 수가 있으며, 또 연기자의 연기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이다. 오랜 시간에 걸쳐 분장을 실시하여 카메라에 잡히지 않는 위치에 분장을 한다면 시간적으로 큰 손실이며 분장을 실행한 것이 결국은 헛수고가 되는 것이다.

주로 상처분장을 하는 부위는 뼈의 돌출된 부위를 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다. 그 이유는 사물에 부딪혔을 때 뼈의 돌출부위가 제일 먼저 접촉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얼굴부위에서는 광대뼈 부위라든지 이마부분이다. 특히 멍 분장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러하다.

뼈의 돌출부위에 명암을 넣었을 때 실제로 돌출되어 보이는 효과가 뼈의 들어간 부위보다는 크다고 할 수가 있다. 주먹이나 기타물건, 그리고 심한타격에 의한 멍 분장은 오른쪽(왼쪽) 눈가나 입 가장자리 그리고 돌출된 부위 등에 둥글거나 타원형의 모양으로 그려준다.

<그림 11>는 극중에서 아내 역을 맡은 소피아가 던져진 물건에 맞은 설정으로 왼쪽 광대뼈 부위에 멍 분장을 실시하였다. 분장의 방향은 사실적인 표현에 기준을 두고 실시한 분장으로, 비록 시트콤의 형식이지만 연기자의 감정을 도와주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요소에 중점을 두었다. 사실적인 표현을 위해 분장에 사용되는 파운데이션은 붉은색을 가볍게 두드리듯 펴 바르며 그 위에 파랑색 파운데이션을 부분적으로 두드리듯 발라서 자연스러운 보라색을 만든 뒤 진한갈색으로 음영을 주어 멍 색깔을 만들며 하이라이트 부분, 즉 제일 돌출되는 부분은 노랑과 흰색을 발라주면 전체적인 멍암이 형성되어 자연스러운 멍이 된다.



그림 16. 던져진 물건에 의해 생긴 멍분장 그림 17. 80년대 후반 코미디 멍분장사진
출처 : 강대영 소장사진

기존 코미디와 비교를 하면 ‘멍’은 웃음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코미디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림 12>는 오른손잡이가 아닌 왼손잡이한테 구타를 당한 설정으로, 눈 아랫부분에 붉은색을 도포한 뒤 보라색으로 타원형의 형태로 분장을 실시한 그림이다. 희극적인 요소를 첨가하기 위해 눈 부위와 입술부위에 부은 듯 실시한 멍 분장은 전체적인 인물의 형상을 희극화 시켜준다. 이러한 분장의 효과는 시청자들에게 코믹적인 표정연기와 더불어 하나의 코미디적인 요소로 완성이 되는 것이다.

<그림 13>는 자동차 폭파장면에서 살아나오는 설정으로서 상황이 억지스러운 면이 있긴 하지만 시트콤이므로 가능한 설정이기에 이 상황을 좀 더 유머러스하고 재밌게 나타내기 위해 분장 또한 보기에 웃음이 나오게끔 분장을 행하였다. 머리는 폭탄 맞은 것처럼 위로 뻗쳐 오르게 하였고, 안면 분장은 검은색 파운데이션을 사용하여 군데군데 칠하여 줌으로써 폭파장면의 현실감을 나타냄과 동시에 웃음을 유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으며 얼굴의 일부분에 상처분장을 하여 그 위에 피를 약간 칠함으로써 현실감을 병행하며 나타내도록 하였다.



그림 18. 자동차 폭파로 생긴 상처분장



그림 19. 폭탄맞은 코미디 분장 사진촬영(1987)

출처 : 강대영 소장사진

앞의 그림 13과 같은 표현방법은 코미디에서도 같은 표현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림 14>는 화재(火災)나 폭발물로 의한 상황을 희극스럽게 표현하기 위해 코미디에서 사용되어왔던 분장의 표현방법이다. 의상과 안면 분장 부분을 재미있게 나타낼 수 있도록 검정색을 이용하여 부분을 도포하며 머리 부분은 가발이나 본형의 머리카락을 이용하여 화재의 표현을 위해 위로 솟구쳐 오르게 표현하거나 부스스하게 만들어 주며 희극적인 요소를 위해 머리카락이나 입에서 연기를 피어나게 연출해 시청자들에게 재미의 요소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듯 코미디에서는 안면 분장에 행해진 분장뿐만이 아니라, 화재의 연기 같은 요소도 희극적인 분장의 요소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시청자들의 웃음을 만들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코미디의 주목적은 ‘웃음’의 요소에 있기 때문이다.

<그림 15>는 젊고 아름다운 인간이었던 이사벨이 뱀파이어에게 물려 늙은이의 뱀파이어로 변한 당시의 분장으로서 웃음적인 요소보다는 사실적인 분장으로 보이기 위해 물린 상처부위를 튜플라스트(Tuplast)³⁷⁾를 사용하여 물린 구멍의 깊이를 먼저 만들고 붉은색 과 검은색 파운데이션을 이용하여 음영의 깊이를 더해 주었으며 마무리는 된 피와 묽은 피를 그 위에 칠하여 줌으로 하여 사실적으로 보이도록 노력하였다.

<그림 16>는 친한 친구와의 우정을 과시하기 위해 싸움에 동참하게 되면서 생긴 상처분장으로 멍 자국 분장은 앞의 설명과 동일하게 하였으며 입술에 생긴 상처분장은 라텍스를 얇게 바른 뒤 검은색과 붉은색 파운데이션을 라텍스(Latex) 윗부분에다 붓으로 채색을 하였으며 조금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기 위해 검붉은 색으로 마무리를 하였다.

37) 튜브안에 들어있는 액체 플라스틱으로 상처, 물집을 표현하는데 사용된다. 튜브에서 짜내어 피부에 바로 부착시켜준다.



그림 20. 드라큘라에게 물려생긴 상처분장



그림 21. 격렬한 싸움 후에 의해 생긴 상처분장

이렇듯 “안녕 프란체스카”에서는 서로의 인물들 사이에 감정의 대립과 이해관계의 표출 등이 자주 일어났었다. 그때 마다 사용되었던 분장이 바로 멍 분장이다. 갈등의 해소가 되는 요인이 얼굴의 상처가 난 후에 그것을 서로 바라보며 격한 감정이 조금씩 사라지는 극의 흐름 전개가 있기 때문이다. 시트콤에선 드라마보다 멍 분장이나 코피를 흘리는 분장 등이 자주 나타난다. 그것은 배역 인물들을 상황에 따라 슬픈 감정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코믹적인 캐릭터로 만들기도 한다. 때로는 진지한 장면을 분장으로 인해 감정을 왜곡해선 안 되며 그러한 장면이 연기자의 감정이나 시나리오를 시청자들에게 진솔하고 정확히 전달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인물들이 상처나 코피를 흘리는 모습은 극의 심각한 갈등상황으로 나타내는 요소로 보이기도 하며 웃음의 선사와 또한 연민의 정을 유발하는 불쌍한 성격인물로 보여 지기도 한다. 그리하여 상황전개에 알맞은 분장을 실시하여 극의 장르와 극의 흐름에 왜곡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2) 해학적인요소의 분장

시트콤에서 재미를 주는 부분 중 하나는 연기자가 시청자들이 예측치 못한 상황설정과 분장의 모습으로 화면에 나타나는 것인데 “안녕 프란체스카”에서의 연기자들은 변화무쌍한 변장(變裝)의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 뱀파이어라는 이야기무대이기에 가능한 설정들이 많았고, 여러 가지로 변신된 모습들이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제공하기도 하였지만 뱀파이어답지 않은 인간애와 가족애로써 시청자들에게 잔잔한 감동도 선사하기도 하였다.

이 극에서는 일부의 뱀파이어들이 남을 속이기 위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장(變裝)하는 장면들을 많이 촬영을 하였다. 예를 들면 젊은 사람이 늙은이로 변장을 한다든지 다른 나라의 전통의상과 분장으로 그 시대적 인물로 변장을 하는 모습 등 각양각색의 모습들을 보여주었다. 때로는 어릴 적 동화적인 발상과 연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시청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흥미를 유발시키며 방송되는 시간동안 지루하지 않게 하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모습 중 몇 개를 사례분석 하여 보았다.

<그림 17>는 노역분장으로써 어린외모의 소피아 고모가 인간의 민속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지루한 하루를 달래기 위해서 인간들이 설을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발생하는 가족끼리의 해프닝을 뱀파이어들 가족끼리 연극을 하며 노는 장면에서 실시한 노역분장이다. 연기자의 실제 나이가 20세인지라 피부상태가 너무나 팽팽해 특수 분장을 행하지 않고서는 실제적인 분장의 사실적인표현이 힘들었으나 극의 시나리오가 연극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장면이므로 사실적인 표현수단인 특수 분장은 행하지 않고 음영과 선을 사용하는 노역분장만을 실시하였다.



그림 22 노역분장



그림 23. 고양이 분장



그림 24. 세일러문 분장

<그림 18>와 <그림 19>는 애니메이션 영화인 “슈렉”의 고양이를 의인화 시킨 모습과 “세일러문”의 모습으로 분장된 모습이다. 허구화된 인물들로 분장을 하게 된 것은 단지 시청자들에게 극의 흐름을 인식하고자 함과 웃음유발의 목적이 있다.

<그림 20>는 TV 화장품 광고를 패러디한 것으로 시청자들에게 예쁘고 유명한 여배우의 모습으로 각인되어 있었던 장면을 개그우먼이 똑같은 장면으로 패러디함으로써 황당한 웃음을 유발하려는 것으로 메이크업이나 헤어는 기존의 광고 cf(Commercial Film)를 그대로 묘사하듯이 분장하여 카메라의 각도나 삽입되는 문자까지도 똑같은 장면으로 연출하였던 모습의 일부분 그림이다.



그림 25. 광고 cf 패러디
(<http://image.search.naver.com>)



그림 26. 정신이상자 분장모습

<그림 22>과 <그림 23>는 글라잔(Glatzan)으로 만든 벌드캡을 이용한 분장과 가부키 분장이다. 외국인물인 황비홍을 분장하기 위해 사용한 글라잔으로 만든 벌드캡은 작업의 난이도는 비록 쉬운 편이나 시간이나 주위 환경으로 인한 분장의 지속력이 떨어지는 단점을 갖고 있는 재료라고 할 수 있다. 분장을 실시한 시기의 환경적인 요인이 고온다습한 무더위로 인해 분장을 끝난 시점의 분장모습은 만족도가 높은 모습이었으나 시간의 흐름과 무더위의 지속은 분장의 지속력을 떨어지게 하였다. 계속되는 NG와 오랜 시간의 촬영에 결국은 촬영 막바지에 가서는 대머리 분장의 모습이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오랜 시간의 촬영과 보다 정밀한 작업을 원할 시에는 폼 라텍스(Form Latex)를 이용한 분장이 보다 정확한 표현 면이나 지속력에서 더욱더 우수한 분장기법 이라고 사례된다.

<그림 22> 는 일본 전통분장인 가부키분장의 모습이다. 일본의 전통적인 가부키분장의 작업순서는 소프트한 왁스로 땀구멍을 모두 매워 매끈한 피부로 만든 뒤 수성물감을 이용하여 작업을 행하게 된다. 이 그림의 작업 또한 전통적인 방식으로 가부키 분장을 재현한 것이다.



그림 27. 황비홍 분장모습



그림 28. 가부키 분장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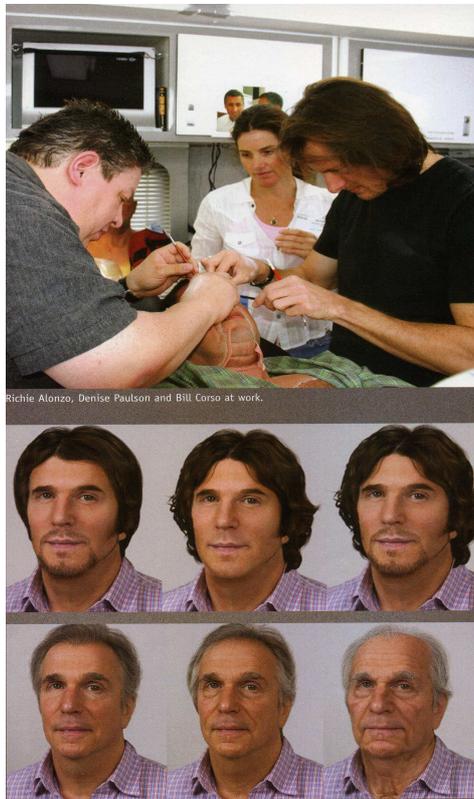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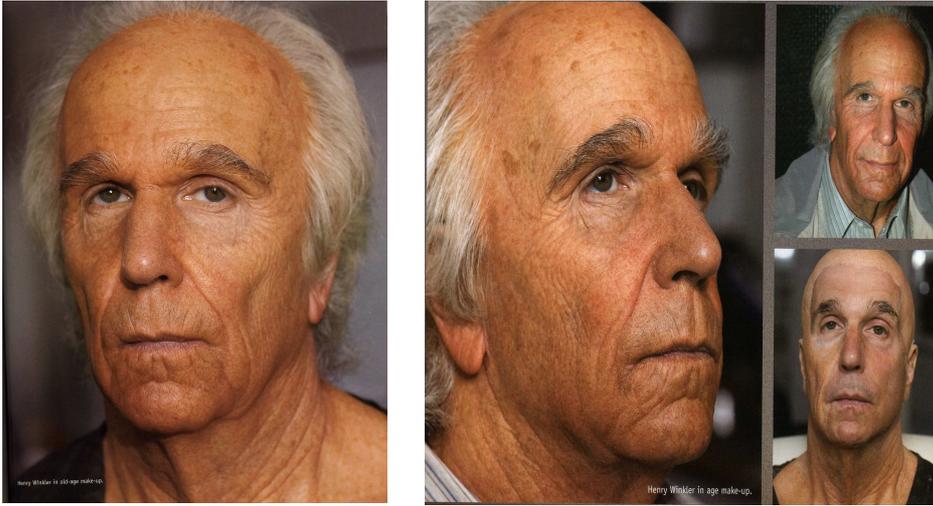


그림 23. 폼 라텍스를 이용한 노역분장과정

출처 : Make - Up Artist Magaine 2006 Issue : 60 MAY/JUN



그림 24. 굶주리고 햇빛은 분장모습



그림 25 . 거지모습으로 돌아온 프란체스카 가족들.

〈그림 24〉와 〈그림 25〉는 시트콤에서 특히 ‘안녕 프란체스카’에서 많이 사용되어 왔던 해학적인 요소가 가미된 분장의 모습들이다. 앞에서 전술한 몇 분장이나 거지모습의 분장 등은 극의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극이 끝날 때 까지 서로의 갈등과 이해 속에서 하나의 웃음을 주는 요인으로 주기위해 등장하였던 분장들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안녕 프란체스카”는 드라마 형식의 극의 사실감과 시트콤의 해학적인 극의 구성으로 약 1년간의 방영으로 막을 내렸다. 외국의 시트콤 시리즈 형식을 모방하여 시즌1, 2, 3을 방영하였으며 시청자들에게 진한 감동과 웃음을 선사해 많은 사랑을 받아오기도 하였다. 분장의 작업적인 방향도 드라마 형식의 잔잔한 감동과 시나리오의 사실된 전달, 그리고 웃음과 인물의 해학적인 모습을 위하여 사실적인 분장표현과 코미디적인 분장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한 사례를 드라마적인 사실적 표현과 코미디적인 방법적 표현을 비교하면서 연구, 분석해 보았다.

제 IV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TV 시트콤의 특성과 분장사례에 관한 연구이다. 시트콤이 한국의 TV 장르로 90년대 초반부터 정착해서 역사가 약 14년이 지난 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트콤의 대한 연구는 부족할 뿐이다. 연구를 통하여 현재의 한국 시트콤의 현 주소를 알았으며 시트콤에서 나타나는 분장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사례연구를 통하여 알아보았다. 요약할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TV프로그램에서 시트콤의 개념에 관하여 고찰.
- 연구문제 2. 분장의 사례연구를 위한 분장의 이론적 고찰.
- 연구문제 3. MBC TV 주간시트콤 “안녕 프란체스카”의 기존의 코미디 분장과 드라마 분장의 비교분석.

본 연구를 실행함에 앞서 여러 가지의 기존 문헌연구를 기초로 시트콤의 이론적 개념과 분장의 이론적 고찰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그 연구결과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시트콤의 개념 연구결과 이다.

시트콤(sit-com)은 시추에이션 코미디(situation comedy)의 약자로 굳이 번역하자면, 단편적 상황코미디라고 할 수 있다. 일상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어떤 코믹한 상황에서 재치 있는 말과 코믹한 행동, 몸짓, 표정, 그리고 춤과 노래 등이 어우러져 그것을 구경하는 방청객을 웃기고 시청자를 즐겁게 해주는 일종의 코미디 쇼이기도 하다. 근래 들어서 시트콤을 그냥 시트콤이라 하지 않고 시트콤 드라마라고 이름

붙여 방송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 이유는 기존의 시트콤과는 달리 요즘의 드라마 형식으로 틀을 갖춘 시트콤이 많이 제작·방송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의 시트콤은 시초는 1993년 봄에 방송되기 시작한 “오 박사네 사람들”(93년10월24일~94년4월17일)이라는 할 수 있다. 그 이후로 많은 시트콤들이 발전을 거듭해 와서 지금은 미니시리즈 형식과 연속드라마의 성격을 나타내는 시트콤이 등장하게 되었다.

기존에 연구되어왔던 시트콤의 특성은 현재 와서는 조금씩 달라지는 양상이 있다. 서구의 시트콤(sit-com)은 TV드라마의 형식 중에 하나로써 인정받고 있지만 한국에선 코미디의 장르로 구분되어 지고 있다. 웃음을 위주로 만드는 장르이다 보니 드라마 국에서 제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능·연애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더욱더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제작 방식은 드라마와 다르지 않게 제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짧은 분량으로 이루어진 한편의 시트콤, 즉 일일 시트콤이 20~30분 분량의 시리즈물로 제작되고 있긴 하지만 요즘의 시트콤은 연속성을 띤 미니 시리즈 형식으로 제작되는 방식도 많이 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시트콤의 특성 중에 하나인 제작비의 절감차원에서 행해졌던 실내에서 세트를 제작하여 실내위주로 촬영하였던 시트콤은 예전과 달리 많은 제작비를 들여 100%로 야외 제작방식으로 사실적인 묘사를 위하여 실제의 집을 섭외하는가 하면, 극중 출연료가 비싼 연기자를 등용하여 시청률을 높이기 위한 제작에 아끼지 않는 투자가 따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장르 또한 다양화 되었다. 이전의 한국시트콤은 가족시트콤과 로맨틱 시트콤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현재는 판타지 시트콤, 여성 시트콤 등으로 시트콤 장르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 하나의 특징은 과거 시트콤이 한 에피소드 내에서 결말은 항상 원점으로 돌아오는 전통적인 관습을 따랐다면 현재의 시트콤은 드라마적 요소를 가미하여 연속성을 띠며 등장인물의 변화 발전하는 양상을 보여 준다.

두 번째로 시트콤 분장의 이론적 고찰에 대한 결과이다.

우리나라에 1980년대(고종 말) 일본에 유학 갔던 동경 유학생들이 귀국하면서 현대 연극을 이 땅에 들어와서 본격적인 극의 분장이 시작되었다. 이 시기의 분장재료는 목랍(木蠟)과 채유(菜油)를 섞은 기름에 칠하고 물분을 바르는 가부키의 방법으로 분장재료를 사용하였던 것이다.

분장은 크게 나누어 무대(舞臺)분장과 영상(映像)분장으로 나눌 수 있다. 무대분장은 무대에서 발표되는 모든 작품에 행해지는 것을 일컫는 말로써 객석과 거리에 비례하여 분장의 강약과 분장의 기법이 조금씩 달라진다. 즉 무대와 객석간의 거리가 멀수록 윤곽인식을 뚜렷하게 분장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대극장에서 행해지는 분장은 하루에 2회 공연을 가장했을 때 첫 번째로 베이스의 양을 두텁게 펴 발라야 한다. 그리고 눈썹과 아이라인은 멀리서도 그 형태를 알아볼 수 있도록 진하고 강하게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노즈 세도우를 행하여 이목구비 윤곽의 기준이라 할 수 있는 코의 모양과 위치를 더욱더 선명히 표현해 주고 있다. 중극장과 소극장으로 갈수록 눈썹과 아이라인 그리고 노즈 세도우는 점점 약하게 행해진다.

영상분장은 영화나 TV에 비쳐지는 모든 피사체를 영상(映像)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영상분장은 영화(映畵)분장과 TV분장으로 구분되어 지기도 한다. 영화분장은 대형 스크린에 의하여 실체(實體)보다 확대되어 영상물이 보이며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의 영화에서는 인화과정이나 편집과정에서 색 보정(色補整)의 단계를 거치므로 색의 변형, 즉 재현색(再現色)을 가져오게 되므로 굉장히 세밀하고 정확한 분장을 요하게 된다.

영상분장을 성격적(性格的)으로 구분을 하자면 성격분장(Character make-up)과 일반분장(Straight make-up)으로 나눌 수 있다. 성격분장은 그 역할의 인물에 최대한 가깝게 보일 수 있도록 행해지는 것이다.

사극분장, 노역분장, 그리고 코미디언에게 행해지는 분장 등이 그 예이다. 일반분장은 출연자의 성격 창출보다는 그 용모를 더욱더 아름답게 표현하고 피부색을 최상의 상태로 나타내어 조명의 강렬한 광선으로 반사를 막아주는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다.

영상분장은 예전에 아날로그 시대와는 많이 다른 양상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현재 HDTV(High Definition Television)시대로 접어들면서 연기자의 얼굴에 잡티가 그대로 드러나는 고화질의 영상시대로 접어들면서 분장사들의 어깨가 그만큼 무거워진 것이다.

초기의 TV는 흑백시대에서 컬러시대로 접어들 때 의상과 분장의 색조에 큰 변화와 발전을 요구해왔고, 현재에 들어서는 디지털 고화질의 시대와 조명 술의 발전으로 인해 발전 없는 분장 술은 더 이상 질타의 대상이 되는 시대이다. 분장사의 개인역량이 화면에 바로 나타나는 시점이므로 많은 분장사들의 기술 습득과 연구가 요하게 된다.

세 번째로 MBC 주간시트콤 “안녕 프란체스카”의 작품분석을 통한 시트콤의 분장의 사례 연구의 결과이다.

시트콤의 기원은 코미디에서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분장의 성격이 기존 코미디 분장의 방법으로 많이 흡수되었던 것이다. 코미디 분장의 과장되고 고증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분장들은 코미디와 시트콤에서 시청자들에게 많은 웃음을 안겨다 주었다. 하지만 시트콤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많은 발전과 형식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

“안녕 프란체스카”의 작품은 연구자가 2005년 1월에 첫 촬영을 시작하여 시즌 1, 2, 3을 거치면서 2006년 2월에 종영할 때 까지 분장업무를 담당하였다. 기존 시트콤의 장르와는 다른 시트콤으로서 흔히 다루지 않는 뱀파이어의 얘기를 다루었으며, 제작방식은 현실감을 살리기 위해 세트 제작방식이 아닌 전체야외 ENG(Electronic News Gathering)³⁸⁾

38) 휴대용 텔레비전 카메라와 비디오 카세트 녹화기(VCR)를 함께 사용하여 뉴스의 현장 취재

녹화로 이루어졌고 미니시리즈와 같은 드라마 형식으로 극의 구성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다른 시트콤과는 특징이 있는 작품이었다. 이 작품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드라마의 형식으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것은 분장과 의상 그리고 장신구와 소도구는 극의 회가 바뀌어도 그 전회에서의 설정들을 계속적으로 연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 기존의 일반 시트콤과는 다른 점이었다. 그리고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웃음과 감동을 주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시트콤이란 점을 고려하여 웃음과 감동을 함께 줄 수 있는, 시나리오에 적합한 상황의 분장을 끊임없이 연구케 하였다.

“안녕 프란체스카”의 분장방법은 사실적인 표현에 기준을 두고 코미디적인 표현을 병행하였다. 뱀파이어들의 서울생활에서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가족애를 경험하고 인간보다 더욱더 따스한 정을 만들어가는 상황에서 시청자들에게 감동과 웃음을 전달해 주는 것이 목적이었다.

따라서 드라마와 코미디적인 요소가 함께하는 시트콤의 장르는 분장의 성격이 근래에 들어와선 드라마 형식으로 많이 나아가고 있다.

드라마와 코미디의 두 장르가 성격분장의 형태로 분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공통점이다. 그러나 드라마는 사실적인 묘사를 위주로 최대한 가깝게 분장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TV에선 ‘심의’라는 문제로 인해 너무 잔인하고 거부감이 드는 묘사는 피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 문제를 제외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사실적인 분장을 하려고 한다.

정극 드라마에선 명이나 상처 같은 분장을 보고 사람들이 웃음을 짓거나 박장대소를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시트콤에선 코미디적인 극의 구성과 분장의 구성이 합쳐서 이것이 가능하다. 극의 흐름과 전개로 그리고 연기자의 훌륭한 연기로 인해 재미와 웃음을 일으키는 것이 사실이지만 분장의 요소가 그 장면에 첨부가 되어서 더욱더 큰 웃음을 증

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기존의 필름 카메라 대신에 비디오 테이프를 사용하여 녹화 후 즉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뉴스 취재에서 기동성·동시성·경제성 등의 이점이 있다. 카메라에 제어 장치(CCU)가 없는 것이 단점이다.

가 시켜주는 기폭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선망의 대상이 되어왔던 연기자나 평상시 근엄한 모습만 보여주었던 연기자가 갑자기 소위 ‘망가지는 연기’를 행할 때 실시되어지는 성격적 분장들은 시청자들에게 볼 재미를 한층 더 가져다주는 것이다. 이러한 점이 드라마와 시트콤의 각기 다른 차이점이라는 연구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

코미디와 시트콤의 분장성격은 극의 희극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분장으로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코미디는 웃음이 주목적이고 웃음만을 위해 짜인 극본으로 구성이 된다. 분장의 방향 또한 웃음을 목적으로 하는 과장되고 고증이 필요 없는 비사실적인 분장이 행하여진다. 시트콤은 다르다. 감동, 웃음, 소설적인 시나리오의 구성으로 극이 만들어진다. 그리하여 분장의 성격 또한 감동을 전달할 때와 웃음을 전달할 때는 각기 다른 성격의 분장이 실시되어야만 시청자들에게 극의 내용을 보다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안녕 프란체스카”에 있어서 극의 구성 중 웃음의 가장 큰 요소는 ‘의외성’과 ‘엽기’이다.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나는 일탈행동과 상황들에서 보이는 ‘의외성’, 그리고 너무나 맛있는 닭요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알고 보니 비둘기로 만든 요리라는 엽기적인 설정, 이러한 요소들이 이야기 속에서 웃음의 요소로 자리 잡으며 이야기를 펼쳐나가고 있다. 프란체스카 가족들이 집주인인 안성택에게 쫓겨나 거리로 내몰리며 생활하는 과정에서 서서히 노숙자가 되어가는 과정의 분장은 노숙의 참혹함과 동시에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야기시키기 위해서 그림 25와 같이 분장이 과장되고 재미있게 표현하기도 하였다.

“안녕 프란체스카”에서 본 연구자가 실시한 드라마적인 성격분장은 극의 진솔함을 나타내기 위해 시청자들에게 사실적인 분장방법으로 다가갔고 해학적인 면에서 나타난 코미디적인 분장방법은 극의 구성에서 나오는 웃음을 최대한의 효과를 위해 실시한 방법이다.

시트콤에서의 분장은 창의력과 분장사의 자질을 마음껏 뽐낼 수 있

는 장이기도 하다. 그 이유는 이야기소재가 굉장히 넓게 펼쳐지므로 한국전통의 분장뿐 만아니라 외국인물 소재의 등장과 상상에 존재하는 인물들의 등장으로 인해 분장의 소재한계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듯 정극 드라마에서 주로 행하지 못하는 특이한 소재들 그리고 그것을 해학적인 분장으로 풀어 나갈 수 있는 창의력과 표현력 등이 시트콤분장의 특성이자 분장의 성격으로 본 연구자는 생각한다.

제2절.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

본 연구물은 TV 영상물 분장사례 연구이다. 현재의 시트콤 영상물을 기존의 TV 영상물과 비교분석하는 차원에서 갖추어져야 할 자료그림의 부족으로 인해 많은 연구의 한계점이 있었다. 기본적인 분장의 자료사진은 있으나 장르에 따른 상황설정의 분장을 연구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적합한 그림을 찾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각 방송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각 방송사마다 본격적으로 영상물의 홈페이지가 많이 만들어져 운영되고는 있지만 그림 자료의 존재는 방송사별로 대략적인 차이는 있지만 약 2001년을 전, 후로 하여 영상물의 자료 유무(有無)가 나타나고 있으며 2001년 전의 영상분장 자료는 방송사별로 찾기가 거의 힘든 실정이며 존재한다하여도 성격분장을 위주로 하는 그림 자료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기존 방송분장의 실무자들로 인해 지극히 소수의 분장자료물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으며 특별한 상황설정으로 인한 자료 물은 더욱더 찾기가 힘든 한계점이 있다.

연구의 목적과 현업의 분장 실무자로서 참여한 영상제작에서 오는 방송 현실의 한계점도 있다. 성격분장에 가까운 안면 분장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시간에 구애를 받고 또 제작비의 저예산 측정으로 제작의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이다. 한편의 영상물을 기획하는데 있어서 영화작업은 수년 동안에 걸쳐진 준비과정과 철저한 제작관리로 인하여 촬영의 시작과 끝이 처음부터 기획되어 있다. 하지만 TV 영상물은 방송물의 극의 횟수가 거듭할수록 시청률에 민감하게 움직이게 된다. 준비단계 또한 몇 달에 불과하여 여러 가지 제작의 어려움으로 위급한 상황에 부딪치곤 한다. 시나리오를 처음 기획단계에서 결말을 정해놓고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지만 TV의 특성상 시청률에 민감히 반응하여 이야기가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하며 극의 대본이 미리 나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전 제작이 필요한 특수 분장일 경우는 시간적인

여유 없이 촬영 하루 전에 대본을 받아보게 되는 상황에서는 특수 분장물의 제작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한계점이 있다. 이렇듯 현재의 방송 현실은 영상에 있어서는 보다 정밀하고 세밀한 분장이 필요로 하고 있지만 제작방식의 현실은 그만큼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울 뿐이다. 이러한 방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제작기간을 두어 보다 정밀하고 여유 있게 모든 영상물이 제작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 TV 영상분장 실무자로서의 바람이다.

나아가서 시트콤과 영상물의 장르에 대한 분장연구를 하게 될 차후 연구를 위해 영상물의 자료들을 좀 더 폭넓게 확보가 되어야 할 것이며 현업을 담당하는 실무자들과 TV 영상물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자료의 확보와 보존을 유지시켜 후임 연구자들의 연구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제언하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단행본

- 강대영, 『한국분장예술』, 지인당, 1999
- 김덕록, 『화장과 화장품』, 도서출판답게, 1998
- 김승수, 『TV속의 연극』, 한국연극협회, 12, 1990
- 장우식. '분장 분석론'.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교재, 2006
- 박수명 외, 『분장(공연예술총서 6)』,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81.

학술지

- 강대영, 「시트콤 전성시대의 작은 생각」, 신문과 방송. 11, 1998
- 방송 위원회, 「프로그램 분류방식과 프로그램 등급제에 관한 시청자 의견조사 보고서」, 1997. 7
- 주병대. 「연기자의 캐릭터 쇼-시트콤」. 방송개발학술지, 1995
- 주창윤, 「로맨틱 시트콤의 장르 관습과 미학」. 방송 심의, 봄호, 1999

연구논문

- 강경화. “텔레비전 시트콤에 나타난 여성상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김승수, 이정표. “다매체 시대의 한국형 ‘시트콤’”, 문화방송간 방송 연구 논문집, 1994
- 김봉천, “한국 TV드라마의 성격분석에 대한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 명수현. “한국시트콤의 장르적 분석”,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박승배, “한국의 무대공연에 나타난 분장에 관한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 송우열, “TV ‘시트콤’의 특성에 대한 비교연구”, 한양대 언론정보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1999
- 이미애, “성격분장의 유형별 이미지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유수열, “TV코미디의 웃음에 관한 연구”, 서강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6

인터넷

Daum 국어사전

<http://image.search.naver.com>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

<http://www.imbc.com/broad/tv/ent/franceska03/>

<http://www.imbc.com/broad/tv/ent/franceska/people/index6,0,0.html>

Naver 지식검색

인터뷰

강대영, 분장사 , 한국분장연구소 (유머 1번지, KBS 사진제공)

남지연, 구성작가, 안녕프란체스카(MBC)

외국문헌

Arthur Wertheim, “*Radio Comedy*”,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1979

Oscar Brockett, “*The Theatre’ An Introduction*”, Holt Rinehart
and Winston, 4th, Ed. 1979

Make - Up Artist Magaine 2006 Issue : 60 MAY/JUN

ABSTRACT

The Case Study of the Properties and Make-up of TV Sitcom - Focusing on the weekly Sitcom "Hi Francesca"

Chae, Joo-Yeop

Major in Make-up Arts

Dept. of Fashion Art & Design

Graduate School of Arts

Hans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 suggestion of direction for make-up. First, I made a concept for make-up of sitcom through early studies. Second, I suggest a appropriate direction of make-up for sitcom.

TV productions are devided into two categories. These are a drama and a non-drama. Again, these are devided into soap operas, comics, actions, love of family, adventures, mystery, history, SF, institutes, music, fears, news, varieties. The make-up has to be appropriately expressed for each work.

The method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 reviewed by early studies to investigate of a basic background of sitcom for example concepts, origins, categories etc. And then suggested to critical point by comparing to present studies from early studies. Second, I suggest a appropriate direction

of make-up for sitcom though the case. The case was "Hi, Franchesca" produced by MBC. I was in charge of make-up of "Hi, Franchesca" during 14 February 2006 from 7 January 2005.

I examined into make-up for sitcom by comparing sitcom comedy to sitcom drama. I tried to make-up fit to character. So I could express to a trait of character very well.

Finally, I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make-up in sitcom as non-verbal communication, as well as script of verbal communication. I would like to be beginning of study that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make-up.